

CPh.a.5

양심선언자들의 모임인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은 정직한 공무원·군인
경찰관과 함께 공직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공무원·군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인간적 삶을 실현할 사람은
바로 공무원 군인 경찰관 자신입니다.

나라사랑모임은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삶을 지원하기 위
한 기금을 공무원 군인 경찰의 '1인 1구좌 1만원 보내기 운동'을 통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약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정의실현과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도록 하
겠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공무원 군인 경찰 및 공직사회의 정의실현을 바라는 민주시민입니다.

국민의 공복적 삶을 위해 국민의 공직자가 앞장서서 실천합시다.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은 국민
을 배신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공직자의 선거관여는 공직자가 고발합시다.

공직사회의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 성금 보내실 곳 ◆

국민은행 008-01-0527-541 이문옥
조흥은행 325-01-149053 한준수
농 협 027-01-436548 양승권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110-480)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107-2 효제빌딩 4층
TEL : 766-8828, FAX : 766-4979

나라사랑 자료

시대의 양심으로

-양심선언 자료모음집-

불교인권위원회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사과두개

연성흙

깃가 일만오천원짜리 최루탄을
 오백개나 날리고
 패잔병처럼 막사로 되돌아온 밤
 수고했다고 보답으로
 대통령이 보냈다는 사과 두개가
 내손에 전달되었을 때도 나는 울었다.
 언제부터인가.
 훌쩍거리는 내 모습이 보기 싫다고
 노상경은 씨부렁대지만
 한편으로는 세월이 약이라며 위로해주는
 그에게 욕을 퍼부어대는 내 모습이 꼴사나와
 대통령이 보냈다는 사과 하나를
 스스럼없이 건네주었다.
 내일은 또 얼마나 최루탄을 쏘려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과를 깨문다
 명든 가슴을 씹는다.

인사말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부정의가 만연하고 그속에서 국민들은 가치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던 공직사회 내부에서 양심적인 공무원, 군인, 경찰들이 자성의 목소리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양심선언자들의 외로운 외침은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척결을 통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양심선언자들의 희생과 노력에 이젠 우리 불교도들이 함께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양심선언자들을 위한 격려의 밤' 행사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들이 양심으로 주장했던 자료들을 모아 '양심선언 자료모음집'을 발간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진정으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 올바른 사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본회는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보살도의 자세로 정진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송월주, 한상범, 용태영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인간평등위해 더 많은 노력 함께하시길...

불교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군사독재의 여진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시기에 여러분들과 뜻있는 불자들이 만들어 활동해 온 인권위원회의 출범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권운동은 평등사상을 온 누리에 펼치자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손이었던 석가의 출가나, 공주였던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의 실천은 사성계급을 깬 인간평등의 실현이었기에 불교 정신은 곧 평등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중생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 귀의한 승려들도 많고 이름난 큰 스님도 많지만 석가나 관세음보살처럼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나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큰 스님들 중에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쓰면 안기부에서 오라가라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스님들도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법적 제재나 부당한 조치를 정당시 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눔의 집 건립기금모금'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인권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찌면 불교계의 은둔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종교에 비해 유달리 금기시하던 어려움 속에서도 과감히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그 공동대표에 취임하신 월주스님과 사람이 사람을 차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없애고자 노력하시는 진관스님, 혜진스님 등 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머리숙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직에 있었던 저는 공직자의 인권에 대한 견해나 인간평등에 대한 배려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평등운동에 참여한다면 관련선거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무원 법에는 공직자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하는 것이 공복으로서 올바른 자세임에도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그들에게는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여겨도 그들의 우월적 지위때문에 처벌 받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영전 등이 이익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공직사회를 꾸짖고 사회전체에 만연된 인간차별의 생각들을 고쳐나가는데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그 시작은 이미 '불교인권위원회' 출범으로 비롯됨으로 불교계지도자와 불자들은 평등사상을 실천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직자와 주위 모든 사람에게 이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더 폭 넓은 인권운동을 전개하여 이 사회를 밝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11월 23일

이문옥(나라사랑양심선언자 모임회장)

5/13
5/13
5/13
5/13

詩-사과 두개/ 연성흠

인사말-불교인권위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며

격려사-인간평등위해 더 많은 노력 함께하시길...

1. 년도별 양심선언자 현황	5
2. 공무원 양심선언 자료	
1) 전 감사관이 아니라 현재도 감사관입니다/ 이문옥	12
2)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위한 양심선언/ 한준수	23
3. 군인 양심선언 자료	
1)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서기 위하여/ 이동균외	38
2)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숙원의 과제/ 정광민	40
3) 눈은 국민의 군대이어야 합니다/ 박길남	42
4)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소원/ 서영완	44
5) 민족자주군대의 한사람으로/ 장문걸	46
6) 155마일의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서준섭	47
7) 민중특별재판소로 통제와 감시없는 사회를/ 윤석양	49
8) 6공화국의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녹화사업을 폭로한다/ 최흥기	52
9) 11월, 5.18광주 민중항쟁을 맞이하는 애국군인의 이름으로/ 이동익	62
10)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기 보다는 떳떳한 죄인이 되기를/ 고대성	64
11) 군 부대내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 이지문	65
12) 굴욕적인 침묵을 거부하며/ 조정희	69
4. 경찰(전경) 양심선언 자료	
1) 경찰 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참회록/ 이병무	73
2) 독재에 고함/ 양승균	75
3) 양심의 두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 매고/ 연성흠	76
4) 온순한 사람을 가장 열렬한 투사로 만드는 역설의 시대/ 노재학	79
5) 대한민국 전투경찰대원에 고함/ 임기철	82
6) 백담사-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을 보호해 주는 태도는 잘못/ 조규봉	84
7) 백담사-아무런 대책없이 동료들을 희생 시키고 있는 그들/ 임성호	85
8) 더이상 방패를 들 수 없었어요/ 유진태	86
9) 동의대 참사-그대들의 꽃다운 청춘을 노예적인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황원진외	87
10) 죽음보다 싫었던 시위진압/ 정월모	90

1. 년도별 양심선언 현황

92년 10월 현재

- 11) 신성한 국방에 의무에 따라 평생을 도망자로/ 이우형91
- 12) 고 강경대군의 어이없는 죽음-그를 누가 죽인 걸가요?/ 박석진93
- 13) 고 강경대 군의 죽음을 보면서-우리를 살인자로 만드는 시대/ 이종수96
- 14) 공 강경대군의 죽음을 보면서-전경 정훈지는 현 정권의 정책홍보지/ 최창윤98
- 15) 전경은 정권안보의 희생양/ 강태중100

5. 기타 자료 모음

- 1) 임택준 중령이 양심선언-인권의 무법자들은 고발한다101
- 2) 최후진술-이제는 불명예스러운 지난날의 눈의 역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정광민105
- 3) 최후진술-우리는 이시대의 어둠을 뚫고 일어서야 합니다/ 박길남109
- 4) 최후진술-부모님을 사랑하듯 조국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양승균112
- 5) 편지글-누구보다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어머님께115
- 6) 편지글-전국의 백만청년학도에게 드리는 애국 군인·전경의 편지117
- 7) 편지글-시위진압을 거부한 이스라엘 병사에게119
- 8) 편지글-고 강경대 열사의 죽음을 보며 구속된 백골단 형제들에게 드리는 글121
- 9) 성명서-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결성 선언문122
- 10) 성명서-한준수 윤석양 석방과 양심선원 보호법 제정 및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바라는 660인 선언문124

〈87년도〉

1. 양승균(상경)

- 1) 일시 : 89. 7. 8
- 2) 소속 : 경기도 이천경찰서 타격대
- 3) 양심선언 내용 : “독재에 고향”-전경해체, 경찰 민주화 촉구
- 4) 구속일 : 89년 7월
- 5) 적용법규 : 국가보안법, 전경대 설치법
- 6) 형량 : 징역 1년 6개월, 상고기각
- 7) 수감지 : 진주교도소
- 8) 만기일 : 91년 4월 12일
- 9) 현재 상황 : 출소후 윤석양후원사업회 사무국장, 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 총무로 활동중

〈88년도〉

2. 이병무(수사계장)

- 1) 일시 : 88. 1
- 2) 소속 : 충주경찰서(경찰대 1기생)
- 3) 양심선언 내용 : “경찰 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참회”

3. 연성흠(일경)

- 1) 일시 : 88년 1월 28일
- 2) 소속 : 서울시경 39중대
- 3) 양심선언 내용 : 전경해체, 국민의 경찰촉구
- 4) 구속일 : 89. 6
- 5) 적용법규 : 국보법, 전설법
- 6) 형량 : 징역 1년 6월
- 7) 수감지 : 진주교도소
- 8) 만기일 : 90.12.14

- 9) 현재상황 : 출소후 윤석양후원사업회 정책실장으로 활동중
- 10) 기타 : 감신대 3년 제적

4. 임기철

- 1) 일시 : 88. 6. 8
- 2) 소속 : 치·본 기동대
- 3) 양심선언 내용 : “대한민국 경찰대에 고향”-전설법 폐지, 전경해체
- 4) 만기일 : 89. 4
- 5) 현재상황 : 출소후 직장생활

5. 정광민(일병)

- 21) 일시 : 88. 6. 8
- 2) 소속 : 수방사 헌병단 31중대
- 3) 양심선언 내용 :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통일군대로의 전환,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 및 올림픽 공동개최 분단의 원흉 미국축출과 독재정권 타도
- 4) 구속일 : 89. 6. 3
-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근무지 이탈)
- 6) 형량 : 2심-징역 4년
- 7) 수감지 : 원주교도소
- 8) 만기일 : 93. 6
- 9) 현재상황 : 수감중
- 10) 기타 : 강릉대 독문과

6. 노재학(상경)

- 1) 일시 : 88. 6. 24
- 2) 소속 : 서울시경 동대문 지구대8중대
- 3) 양심선언 내용 :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촉구, 전경해체투쟁촉구

- 4) 구속일 : 89. 6
- 5) 적용법규 : 국보법, 전설법
- 6) 형량 : 2심-징역1년 6일
- 7) 만기일 : 90. 12. 18
- 8) 현재상황 : 출소후 장재완 양영진 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중

7. 김상철(일병)

- 1) 일시 : 88.11.18
- 2) 소속 : 공군 제1전투비행단
- 3) 양심선언 내용 : 군부대내 폭력 및 비리척결
- 4) 구속일 : 89. 6
-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
- 6) 형량 : 징역2년
- 7) 만기일 : 91. 6. 8
- 8) 현재상황 : 출소후 가사에 종사

<89년도>

- 8. 이동균(대위)-현재 윤석양후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활동중
- 9. 김종대(중위)-현재 인쇄출판사 경영(기무사의 감시로 어려움)
- 10. 이청록(중위)
- 11. 박동석(소위)
- 12. 권균경(소위)-자대 징계후 복무
 - 1) 일시 : 89. 1. 5
 - 2) 소속 : 30사단
 - 3) 군 명예선언 내용 : 군의 반민주적, 반 민족적 행위 금지. 정치군인들의 반성 촉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통한 국민의 군대로의 거듭남을 촉구
 - 4) 구속일 : 89. 1
 - 5) 적용법규 : 군형법
 - 6) 현재상황 : 자대징계후 만기전역(이청록 중위, 박동석 권균경 소위) 이등병으로 강등 불명예제대(이동균대위, 김종대 중위)

13. 박길남(이병)

- 1) 일시 : 89. 1. 7
- 2) 소속 : 35사단
- 3) 양심선언 내용 : 군내 살인적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 4) 구속일 : 89. 6. 8
-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군무이탈)
- 6) 형량 : 2심-징역 5년
- 7) 수감지-대전교도소
- 8) 만기일 : 94. 6. 24
- 9) 기타 : 부산대

14. 조규봉(이경)

- 1) 일시 : 89. 1. 31
- 2) 소속 : 강원도경 원주경찰서 제2기동대
- 3) 양심선언 : 전씨부부 구속과 전경대 해체. 군경 민주화 촉구
- 4) 구속일 : 92. 7. 29
- 5) 적용법규 : 전경대설치법(군무지 이탈)
- 6) 수감지 : 원주교도소
- 7) 현재상황 : 92. 10. 16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후 출소하여 자택 휴양중
- 8) 기타 : 충북대 연초학과 제적

15. 김광제(이병)

- 1) 일시 : 89. 2. 27
- 2) 소속 : 경기도경 제2전경대 안산 경찰서
- 3) 양심선언 내용 : 전경대 해체와 경찰 민주화
- 4) 구속일 :
- 5) 적용법규 : 전설법
- 6) 형량 : 징역 2년6월 집유3년 석방
- 7) 현재상황 : 양심선언후 자대복귀, 자대징계후 다시 전경으로 복무하다 제대

16. 임성호(일경)

- 1) 일시 : 89. 2. 8
- 2) 소속 : 강원도경 태백경찰서 제2기동대

- 3) 양심선언 내용 : 전씨부부 구속 처벌. 전경대 해체. 백담사 경호근무 폐지
- 4) 현재상황 : 수배중

17. 유진태(일경)

- 1) 일시 : 89. 4. 3
- 2) 소속 : 경기도경 기동2중대 3소대
- 3) 양심선언 내용 : 울산현대중공업 탄압을 거부. 전경대 해체와 민주화운동 탄압중지 촉구
- 4) 구속일 : 89. 7
- 5) 적용법규 : 전설법
- 6) 형량 : 징역2년6개월 집유3년 석방
- 7) 현재상황 : 제대후 성균관대 재학중

18. 서영완(일병)

- 1) 일시 : 89. 4. 17
- 2) 소속 : 28사단 82연대
- 3) 양심선언 내용 : 국보법, 집시법, 사회안전법 폐지, 군의 정치적 중립화, 평화 통일 교육실시, 언론, 사상, 독서, 집필의 자유보장
- 4) 구속일 : 90. 4. 25
-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군무이탈)
- 6) 형량 : 징역3년, 사단장 선고 징역1년 6월
- 7) 만기일 : 91. 11. 2
- 8) 현재상황 : 출소후 윤석양후원사업회 조직부장으로 활동중
- 9) 기타 : 충남대 영문과 제적

19. 황원진(수경)

- 1) 일시 : 89. 5. 8
- 2) 소속 : 서울시경 제3기동대 97중대, 사복체포조(백골단)
- 3) 양심선언 내용 :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민주화, 5공 정치권력형 간부척결, 동의대 참사 책임지고 내무장관, 부산 시경국장, 관할경찰서장 퇴진을 요구하고 평민당사

- 에서 단식농성
- 4) 적용법규 : 전설법
- 5) 형량 : 징역1년 6개월 집유2년
- 6) 현재상황 : 석방제대후 윤석양후원사업회에서 활동중

20. 이상철(수경) : 위와 동일함. 현재 직장생활중

21. 정균한(상경) : 위와 동일함. 현재 서울대 농대 재학중

22. 유성호(수경) : 위와 동일함. 자대징계후 제대. 윤석양후원사업회에서 활동중. 외대 독어과 재학중

23. 손동권(상경) : 위와 동일함. 자대징계후 제대. 현재 경성대 재학중

24. 강동주(상경) : 위와 동일함. 자대징계후 현재 직장생활

25. 류범희(이병)

- 1) 일시 : 89. 5. 12
- 2) 소속 : 32사단
- 3) 양심선언 내용 : 충정훈련 금지, 방위병제 도폐지
- 4) 구속일 : 90. 1
-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
- 6) 형량 : 징역1년
- 7) 수감지 : 원주교도소
- 8) 만기일 : 91. 1. 31
- 9) 현재상황 : 출소후 충남대 재학중

26. 이하일

- 1) 일시 : 89. 6. 2
- 2) 소속 : 광주동부경찰서
- 3) 양심선언내용 : 이철규열사의 사인규명 요구
- 4) 형량 : 자대징계후 잔여기간 복무
- 5) 현재상황 : 제대후 가사에 종사

27. 장문걸

- 1) 일시 : 89. 6. 13
- 2) 양심선언 내용 : 전투방위병 해체. 충정훈련, 단기사병, 기동타격대해체, 구속된 양심선언 군인석방촉구, 전투환 구속처벌
- 3) 현재상황 : 수배중

<90년도>

28. 정월모(상경)

- 1) 일시 : 90. 3. 13
- 2) 소속 : 전남 611전경대
- 3) 양심선언내용 : 민자당해체, 구타근절, 전경본연의 업무충실을 위한 제적 장치마련 촉구.
- 4) 구속 : 91. 7. 13
- 5) 적용법규 : 전경대설치법
- 6) 형량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출소하여 잔여복무후 제대
- 7) 현재상황 : 제대후 외대 독어과 3년재학중

29. 서준섭(상병)

- 1) 일시 : 90. 7. 27
- 2) 소속 : 군수사령부 탄약사령부 제8탄약창 1탄약중대
- 3) 양심선언 내용 : 국군조직법 폐기,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촉구, 남북한 군사력 10만이하 감축등 촉구
- 4) 현재상황 : 양심선언후 자대 복귀하여 구속되어 육군교도소 수감중, 92. 7월경 출소 및 제대
- 5) 기타 : 울산대

30. 윤석양(이병)

- 1) 일시 : 90. 10. 4
- 2) 소속 : 육군제3사단 22연대 8중대 3소대

- 3) 양심선언 내용 : 국군보안사의 대국민사찰 폭로
- 4) 구속일 : 92. 9. 23
- 5) 적용법규 : 군무 이탈
- 6) 수감지 : 철원 3사단 헌병대 영창
- 7) 기타 : 외국어대 노어과

31. 이우형(이경)

- 1) 일시 : 90.10.15
- 2) 소속 : 서울시경 제3기동대 7중대
- 3) 양심선언내용 : 보안사, 안기부, 치본대 공분실과 전경대, 백골단해체
- 4) 현재상황 : 수배중
- 5) 기타 : 추계예대

<91년도>

32. 최흥기(이병)

- 1) 일시 : 91. 4.15
- 2) 소속 : 2군지원사령부 5163부대 805독립중대
- 3) 양심선언내용 : 6공화국내의 녹화사업 폭로
- 4) 현재상황 : 수배중
- 5) 기타 : 군산대

33. 최진국

- 1) 일시 : 91. 5
- 2) 양심선언내용 : 「애국군인 편집부사건」으로 수배중 양심선언
- 3) 현재상황 : 수배중

34. 박선진(일경)

- 1) 일시 : 91. 5. 4
- 2) 소속 : 서울시경 제1기동대 1중대
- 3) 양심선언내용 : 전경, 백골단해체, 노정권 퇴진, 시위진압금지, 내무반생활에서 구타, 가혹행위 금지와 전경들의 양심적행

동 촉구

- 4) 현재상황 : 수배중
- 5) 기타 : 건국대

35. 이종수(일경)

- 1) 일시 : 91. 5. 13
- 2) 소속 : 서울시경 제2기동대 63중대 3소대
- 3) 양심선언내용 : 내무부장관, 치본장, 시경 국장을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의 살인교사죄로 고발, 전경의 불법적 시위진압동원 중단 촉구
- 4) 현재상황 : 수배중
- 5) 기타 : 동국대

36. 이동익(이병)

- 1) 91. 5. 24
- 2) 소속 : 육군50사단 121연대 해안5대대 124레이다기지
- 3) 양심선언내용 : 군내부의 각성과 애국군인의 민주군대 쟁취를 위한 노력촉구. 충정훈련 거부. 기무사해체. 전경, 백골단 강제착출 거부. 군내 인권유린실태 규명 촉구
- 4) 현재상황 : 수배중
- 5) 기타 : 동국대

37. 최창윤(수경)

- 1) 일시 : 91. 6. 7
- 2) 소속 : 제주경찰서
- 3) 양심선언내용 : 백골단, 안기부해체, 군인, 전경의 사상표현의 자유보장, 학생운동, 노동운동탄압중지, 공안통치종식과 노정권퇴진 촉구
- 4) 현재상황 : 91. 6~7월경 집유석방
- 5) 기타 : 영남대

38. 고대성(일병)

- 1) 일시 : 91. 8. 12

- 2) 소속 : 육군제11사단 9연대 4대대
- 3) 양심선언내용 : 정훈교육폐지, 주한미군 철폐, 남북상호감군요구, 애국병사 탄압하는 군당국의 각성촉구
- 4) 현재상황 : 수배중
- 5) 기타 : 경원대

39. 이한수(일경)

- 1) 일시 : 91. 12. 1
- 2) 소속 : 천안경찰서 2610전경대
- 3) 양심선언 : 전투경찰대 해체. 쌀수입개방 저지. 전시접수국지원협정 철회등 촉구
- 4) 구속일 : 92. 3. 7
- 5) 적용법규 : 군형법(군무이탈)
- 6) 형량 : 1심 1년6개월 현재항소중
- 7) 현재상황 : 수감중
- 8) 기타 : 충남대

40. 이재원(일경)

- 이한수일경과 동일
- 1) 현재상황 : 수배중
- 2) 기타 : 청주대

<92년도>

41. 강태중(일경)

- 1) 일시 : 92. 1. 15
- 2) 소속 : 전북경찰청예하 제2308전경대 1소대
- 3) 양심선언내용 : 전경해체, 민주정부수립, 지성룡 의문사 진상공개
- 4) 현재상황 : 수배중
- 5) 기타 : 외대 용인캠퍼스

42. 이지문(중위)

- 1) 일시 : 92. 3. 22
- 2) 소속 : 9사단
- 3) 양심선언내용 : 3.24국회위원 총선거서

- 군부재자 투표부정 폭로
- 4) 구속일 : 92. 3. 24
 - 5) 적용법규 : 균형법(근무이탈), 명예훼손죄
 - 6) 형량 : 이등병강등 불명예제대
 - 7) 현재상황 : 제대후 공선협에서 활동중

- 5) 적용법규 : 선거법
- 6) 현재상황 : 불기소 처리되어 잔여 복무중
- 7) 기타 : 동양공전 기계과

43. 이원섭(일병)

- 1) 일시 : 92. 3. 28
- 2) 소속 : 국군 통신사령부 예하부대
- 3) 양심선언 내용 : 국군 통신사령부의 3.24 총선시의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한겨레신문에 편지제보
- 4) 구속일 : 92. 4. 10

44. 조정희(일병)

- 1) 일시 : 92. 9. 28
- 2) 소속 : 제32사단 505여단 중구관리대에 기동중대
- 3) 양심선언 내용 :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사건이 기무사의 고문수사, 밀실수사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폭로
- 4) 현재상황 : 수배중
- 5) 기타 : 한남대 87. 국문학과

<양심선언 군인·전경 현황 도표>

양심선언 현황			
년도	군인	전경	년도합계
87년		1명	1명
88년	2명	4명	6명
89년	9명	10명	19명
90년	2명	3명	5명
91년	4명	5명	9명
92년	3명	1명	4명
합계	20명	24명	44명

구속자 현황	
군인	전경
3명	2명
총5명	

수배자 현황	
군인	전경
6명	7명
총13명	

<양심선언 공무원 현황>

1. 이문옥 감사관

- 1) 일시 : 1990. 5. 11
- 2) 소속 : 감사원
- 3) 양심선언 내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감사원 독립
- 4) 기타 : 구속 되신후 석방되어 경실련,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회장)에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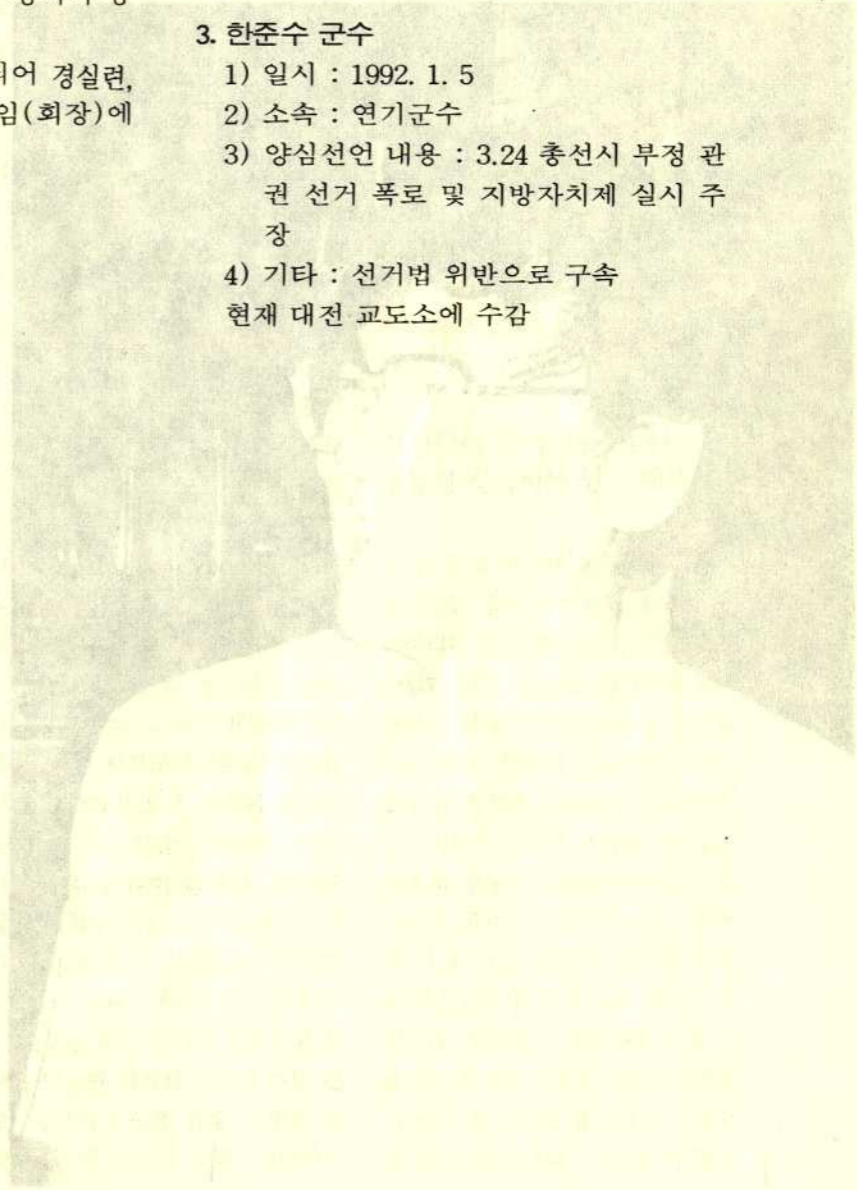
- 3) 양심선언 내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조속한 실시

2. 박동렬 동장

- 1) 일시 : 1991. 1. 5
- 2) 소속 : 목포시 안동 동장

3. 한준수 군수

- 1) 일시 : 1992. 1. 5
- 2) 소속 : 연기군수
- 3) 양심선언 내용 : 3.24 총선시 부정 관권 선거 폭로 및 지방자치제 실시 주장
- 4) 기타 :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현재 대전 교도소에 수감



2. 공무원 양심원

전(前) 감사관이 아니라

먼저 이 지면을 빌어 그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숙고하고 발표의 결심을 굳힐 때에는 최악의 경우 좁은 공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성원과 도움으로 두 달도 안 되어 이렇게 석방되어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성금을 보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특히 경실련에서 격려바자회를 열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셨을 때는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남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이만한 성원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자기의 일을 했다는 데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감사관입니다

이문옥 감사관의 수기

오늘 아침도 사람이 적은 동네 약수터에 갔는데, 젊은 사람이 쫓아 오면서 이 감사관 아니냐고 하면서 반가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제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주치는 사람마다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짓고, 말을 걸어오면서 그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제가 대신 해 주었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다시 한번 큰 격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려와 성원에도, 아내는 가끔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아파트인 이곳에는 감사원 직원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출근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남편의 상황이 가슴 아픈 모양입니다. 때론 이사를 가자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법정에서도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유죄판결을 받고,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일이 우리나라 국정 발전에 보탬이 되었다고 또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라를 위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지금 감옥에 있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야

그러나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생활의 문제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을 둔 사람으로서 앞으로 학비도 늘어 날텐데, 교육비를 지원받고 퇴직 후의 생활도 걱정 없을 안정된 공무원의 생활을 박차고 나올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발표를 결심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였고,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잃을 것을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의 공무원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아갈 수도 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잘못 되는 것도 눈을 감고, 눈치를 보아야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뒷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밥먹고 살기 위해 아무 말 못한다면, 부당한 명령을 박차고 일어나고도 그 자리에서 계속 멍멍이 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원이 압력받는 이유는 대통령 직속하에 있기 때문

불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몇 배로 뛰고, 집없는 사람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현 상황은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결국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시정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감사원에서조차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력에 의해, 밝혀진 사실마저도 사장이 된다면 현재의 악순환은 끝을 모르고 계속될 것입니다. 재벌들이 있는대로 땅을 사들이는 현재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땅을

내가 잃을 것을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의 공무원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갈 수도 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지, 잘못되는 것도 눈을 감고 눈치를 보아야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시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은 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시정되려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에 반영이 되려면 우선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라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지요. 그러나 저도 즉시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감사전담자에 의해 본인에게 올라온 것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 국회, 대통령에 보고되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감사결과에 대해, 자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 지시에 승복할 수 없어 서류에 사무총장 지시라는 것을 써넣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상급자인 과장에 의해 명령대로 이행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든 이것을 사회에 알려 감사원의 잘못을 시정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그들의 부의 형성에 기여했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잃게 하는, 땅을 사들여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증명하는 마지막 공문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바로 발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감사원 내부에서는 80년대 초반에 없어졌던 감사원 6개 국(局) 중의 하나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기구 확대에 관한 동료들의 주사, 사무관, 과장, 국장 등으로의 승진의 가능성을 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망을 꺾어 버릴 수가 없어, 기구 확대 이후로 기회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배우기 시작한 단전호흡 등 체력 단련을, 발표 이후 구속예 대비하여 더욱 열심히 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 장기감옥에 있게 되면 재판을 제대로 받고, 석방 이후 무엇인가 하더라도 우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사무총장의 지시로 인해 저는 출장을 가지 않게 되었으므로, 더욱 단전수

련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의 숙원이었던 기구개편이 12월에 있었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과의 과장, 국장이 모두 다른 자리로 전보되고, 저는 교육담당관실로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문책인사라는 말을 듣게 되어, 제가 그 시점에서 발표하게 되면 인사불만이라고 몰고 갈 것 같아 다시 한번 기회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담당관실에게 감사원 직원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었을 때, 저는 '감사원에서 제일 눈치없이 지내온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을 시작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슴을 조였다는 말을 나중에 저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의 원인에 대해서, 또 그것들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기관이 독립되지 못하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

니다. 많은 나라의 경우, 감사기관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관으로 있거나 국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하에 감사기관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1990년 1월 중에 제가 근무하고 있던 과에 공교롭게도, 내각책임제 하에서도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하에 둘 수 있는 이론적 방안을 연구하라는, 이른바 무장의 연구용역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2월에 한겨레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신문사 중에 한겨레신문사를 생각한 것은, 그 이전에 군인 2명이 양심선언을 하려 했을 때 신문사에서 거부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신문사를 택하면 그대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한겨레신문사를 찾았습니다. 공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연락 전화번호를 남기고 돌아왔는데, 3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 두 분을 만나 자료를 주었는데, 금방 신문에 나올 줄 알았던 것이 4



6월 2일 파고다 공원 이 감사관 구속규탄대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월이 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한번 연락을 받고 기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신분상 불이익이 클 것을 염려하여 다시 한번 저의 결심을 확인하고 싶어하였고, 저는 모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정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

그러나 5월까지도 기사는 나가지 않은 채, 부동산은 계속 폭등하고 있어 저는 양심선언을 할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하며 양심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4일 밤에 다시 신문사로부터 연락이 와, 기사화하기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어, 저는 그러면 보도날짜를 연초에 정해진 휴가일 직전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직후 감사원에 출근해 일할 용기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5월 11일부터 휴가였기 때문에,

5월 10일에 저는 마지막 강의를 하고 시험문제를 내어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날 강의 시간에 저는 평소에 하던 말, '여러분은 직업 공무원이며 직업공무원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관장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파, 어느 정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정권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제자리를 지키면 나라가 튼튼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급직원들이 아무리 어렵게 유혹을 피해가며 일을 해 놓아도, 위의 사람이 한마디로 못하게 하거나 목살하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감사원의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윗분들이 외풍을 막고 직원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실무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공무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른 중요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상실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를 다니는 직원들은 모두 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작년 겨울에도 직원 한 사람이, 감사관계 문제로 청탁하러 온 사람을 피하기 위해 뒷창문으로 출근하려다가 허리를 다쳐 몇 달 동안 크게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애쓰며 일해 얻은 결과들이 윗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장되어 버리면 큰 갈등을 느끼게 되지요.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 재벌이 아닌 국민이다

저희 세대는 모두 그렇겠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법이 공정하지 못

하게 실행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농사지을 때 농지세, 소득세를 매기는데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과 연결하여 적게 물고, 적게 지은 사람은 많이 지은 사람과 같게 물거나 오히려 많이 무는 경우를 비롯해서, 시골에서도 불만이 많은 걸 실제로 많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고 생각해 이장에게 항의하기도 했으나, 이장의 권위가 대단해 한번 툭 쏘면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었지요. 위에 거슬리면 여러 모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요. 나무를 안 딸 수 없는 시골에서, 산림계 직원을

보낸다든가, 잔치를 하면 세무서 직원들을 보낸다든가 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모두 뒷거래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자유당 시절 이래로 법 집행이 보복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이들이 투자해서 만든 국영기업체,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하는 감사원의 일은 상당히 방대하고 어려움이 많은 일입니다. 기업의 세무신고에 관한 감사는, 세무서 감사의 대상으로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비업무용



타시(한지연)에 모인 가족들. 부인 이경숙 여사와의 사이에 낄매를 두고 있다

토지를 세법대로 신고처리하고 있는지, 세무서 직원의 잘못이 없는지를 감사하게 되는데, 이 때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사된 사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하게 되면 공무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른 중요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상실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가 감사원 주관 아닌 안기부 주관으로 둔갑한 적도

제가 이번 발표를 결심한 것은, 물론 그 이전부터의 문제점들을 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년 9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실태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문제는 감사원의 다른 과에서보다도, 제가 일하고 있던 과에서 세무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속된 후 담당감사에게 이러한 저의 동기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는 제가 한 말과 다르게 씌어져 있었습니다. 검찰에 대해 심히 실망했지요. 그건 내가 한 말과 다르다고 항의했더니,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이전에 제가 보고 느낀 문제점들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84년 새마을 본부장 전경환 씨가 아르헨티나 장관 부부 초청의 비용으로 해외개발공사에 4천여 만원을 부담시킨 일, 1987년, 1988년도의 서울시 예산 중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일 등.

감사원에서 이렇게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한편, 84년에서 87년까지,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 주관으로 하지 못하고 안기부 주관하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원 직원이 안기부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감사를 하였으며, 이는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대사관에서 왜 감사원에서 주관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안기부에서 하는가 하고 물어보면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 지 매우 곤란했습니다. 수모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법이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역사는 무죄를 인정할 것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되었을 때 또 한차례 실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니 도주를 할 리도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야 모든 자료가 감사원에 있는데, 법무차관, 감사원 사무총장이 모여 내린 공무원 기밀 누설은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결정대로 구속이 결정되었을 때, 사법부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기밀이라면 최소한 대외비로라도 분류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외비도 아닌 자료가 기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위배될 때,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저의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제가 설사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역사는 저의 무죄를 인정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미는 부동산 정책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아 집이라도 지니고 살지만, 집값이 폭등하여 갈 곳 없게 된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으로 국민의 이익이 침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구속이유로 정부의 공신력을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정부의 공신력보다도 앞서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이익이 바로 국가의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무원 아파트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혜택으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산동네에서 10여 년 이상 살았지요. 평지로 내려와서는 전세로 살다가, 이 아파트에 살게 된 것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89세로 돌아가셨는데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 들어와 4개월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어머니께서 해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머니께서 이 집을 마련해 주신 것은 제가 마음껏 소신을 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명륜동 산동네에 살 때에도 한동안은 수도도 없어, 산 위의 물탱크 인근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면서 살았지요. 저야 어떻게 집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려는 희망마저 포기한 채, 어차피 집도 못 살 바에야 자동차라도 사서 편하게 살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잘못되

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일을 맡고 있는 감사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런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든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누구도 내 자리에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고.

국민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데에 긍지를 가지고 사셨던 아버지께 대한 도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총무처에 근무하면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나 하지도 못했는데, 부모님은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받으시고 만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에 보내주셨지요. 물론 교육열만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저보다 사정이 더 나았던 친구들도 진학하

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 예를 들면서 그들의 부모님께 원망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도 학교에 보내주었는데, 사정이 더 나운데도 왜 안 보내주었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공부하여 서울의 총무처에 취직되어 올라온 후, 경제적으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못했지요. 그저 아들이 총무처에서 근무한다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사셨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공무원 처우가 많이 나아졌지요. 일반 기업체만은 못하지만 상여금도 6백~7백% 되고, 그 당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나 명령으로 국민의 이익이 침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구속이유로, 정부의 공신력을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정부의 공신력보다도 앞서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이익이 바로 국가의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2년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식때, 이때 이감사관은 수석졸업을 하였다.

주위의 격려와 위로로 힘을 얻은 가족

5월 10일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집에 오니, 아내는 외출 중이고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고2인 딸아이는 시험공부를 하고 있어 말을 못하고, 중3인 아들녀석에게만 말을 했지요. 충격받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는 동안 묵묵히 듣고만 있더군요. 아내에게는 그 전에 미리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제 결심이 무너질지도 모를까봐 말을 못했지요. 아내는

노령의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겨나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3일 시골에 다녀오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강릉행 버스에 몸을 실었지요. 며칠 동안 생각도 정리하고 좀 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에 그래도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걸려 휴게소에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차마 말을 하지 못했지요. 그냥 며칠 있다 오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하니 밤이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집 근처에 사는 조카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침에 집사람이 신문을 들고 올면서 찾아왔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집에는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카에게 잘 위로해 달라고 부탁만 했지요. 구속에 대비하여 며칠 잠을 잘 자고 쉬려고 했는데 아이들 생각, 집사람 고생할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니, 집사람이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울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의연했습니다. 벌써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위로도 해 주고, 도와 주겠다고 격려하여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달려왔지요. 제가 이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염려를 그래도 어느 정도 덜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힘이 되어 주었지요. 친구들도 가족 못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서로 상의했지요.

그 이튿날 집사람은 제가 걱정이 되었던지 감사원에 같이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감사원까지 같이

정부의 한 공무원으로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재벌이 보호된다든가, 또 그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희망을 잃는다면, 그때야말로 정부는 정부로서의 공신력을 상실하는 것이겠지요. 정부가 신뢰받으려면 정부는 언제나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편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출근을 했지요. 출근하여 주위 동료들에게, 신문에 난 사실이 제가 한 일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검찰담당관에게 불려갔고, 오후에는 사무차장을 만나 저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0분에 검찰담당관실에 불려가 11시 경까지 조사를 받고, 11시 30분 경에 검찰에 연행되어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요.

구속까지 각오했지만 사법부에 일말의 기대도

제가 발표를 결심할 때에는 물론 구속까지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만, 8일에 정부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구속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된 것이었지요. 나중에 석방되어 나와서 보니 14일에는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조사 공무원의 활동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더군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15일에 구속 결정

이 난 것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23일에 구속적부 심사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법정을 생각했었습니다.

검사는 인사 관계 부분만을 계속 집중적으로 묻더군요. 그래서 동기 부분이 왜곡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그때까지의 저의 체험,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시 예산 전용 문제와 제가 직접 다룬 문제들만을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저의 동

기를 인사불만으로 물고 가는 것을 보니, 미처 준비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어렵지 않게 나오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이 되어, 사법부에 대해 실망이 컸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검토를 하면 구속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석결정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계시는 분들이,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이 되면 보석도 되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석결정이 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의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의 감사때 방콕에서 이때 감사업무는 인기부주관하에 이루어졌다



기업의 땅 투기는 정부의 정책의지 결여 때문

검찰은 구속이유로 제가 발표했던 보고서에 나타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비율 43.3%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에 손상을 주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비율은 1.2%였습니다. 하지만 재벌 기업들이 땅 투기에 손을 대 전국 각지의 땅을 사들이는 일, 심지어 기업명의로도 아니고 친·인척, 임직원 명의로까지 땅을 사들이는 일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근 10대 재벌 소유의 부동산 중 18% 상당을 비업무용으로 발표하고 그중 상당부분을 매각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감사원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되었더라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기업의 땅 투기가 심각한 것은, 결국은 정부의 정책의지의 결여에 그 원인이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정경유착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수

립되고 수행되기보다는 재벌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공신력은 정부가 국민을 위할 때

정부의 한 공무원으로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재벌이 보호된다든가, 또 그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희망을 잃는다면, 그때야말로 정부는 정부로서의 공신력을 상실하는 것이겠지요. 정부가 신뢰받으려면, 정부는 언제나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편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권력의 권위도, 정부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을 행사할 때만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을 경실련이 요구하게 된 것도, 이제까지의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제가 폭로한 서울시의 예산전용 문제도, 평민당은 3백 97억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 반해, 감사원은 이 중 2백6억원은 부정축재자들에게 반환했고, 1백 70억원은 재산평가액 차이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발표한 조사 보고대로 21억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의 초점은 얼마나 하는 데 있기는 것입니까. 또 반환했다는 2백6억 원도, 그러면 과연 돌려 준 것은 전당한 것인지, 돌려 주었다면 누구에게는 돌려 주고 누구에게는 안 돌려 주었는지, 누구에게 얼마, 모두 얼마를 돌려 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6월 28일에 있었던 1차 공판에서 검사는, 제가 정부와 감사원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등의 비난을 했지만, 저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을 택했다는 것을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판이 미루어져,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심정으로, 이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

2)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과 身分保障을 위한 良心宣言

— 官權不正 濫用 實態 暴露 —

한준수

한준수 군수 약력

1. 학력 및 경력

- 931년 충남 청양 출생
- 대전실업전문대학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59.8.31 충청남도 제1회 3급 지방공무원 자격고시(행정과) 합격
- 69. 10 지방행정 사무관 특별 승진시험 합격
 - 충청남도 아산·논산군 감사실장 역임
 - 대전시 상공과장, 금산군 새마을 과장, 연기군 식산과장 역임
 - 충청남도 이수·운영·보건·세정계장 역임
- 89. 1.1 청양 군수 역임
- 91. 1.14 이후 연기 군수 재직

2. 포상

- 64. 12. · 72. 8. · 81. 2 내무부장관 표창
- 86. 12. 22. 근정포장(33057호)
- 91. 7. 우수수범 공직자 선정(국무총리)

3. 주요경력 사항

- 부당한 인사조치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하여 승소
 - 73. 2. 10 충청남도 대전시 상공과장으로 재임시 당시 도지사이던 민유동씨의 이권개입 압력을 거부하여 직위해제 당함.
 - 총무처에 소청심사 제기, 기각
 - 72. 12. 18 행정소송제기, 원인무효로 승소판결 받음, 원직복직
- 도덕성회복 운동의 전개(향약 실시)
 - 청양군수 재임시 평소의 소신대로 군민의 회복을 주창, 조선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연구하여 현대판 향약 처음 실시
 - 연기군수 재임시 전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약 실시(현사회의 타락사의 원인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팽배에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하였으나 부도덕과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정치체제로 인하여 심히 갈등)
- 피폐화 해가는 농촌현실을 극복하고자 공해없는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농공단지 조성
- 장학기금을 조성(청양 애향장학회, 연기 한마음 장학회)하여 지역출신의 우수 학생 지원노력

나) 양심선언문

1. 저는 一般職 國家公務員인 書記官(職業公務員)으로서 忠清南道 靑陽郡守를 거쳐 燕岐郡守로 在職한 韓嶽洙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느 政黨이나 機關, 또는 個人을 두둔하거나 몰아세우기 위하여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憲法精神에 사를 장려 方向感覺을 잃고 彷徨하고 있는 政治圈의 覺醒을 促求하고, 政治的으로 利用당하고, 權力에 支配되고 있는 우리 職業公務員들의 政治的 中립과 身分保障을 宣明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元來 公務員은 特定政黨이나 政治的 權限에 얽혀 있는 소위 돌은돌이 私兵 이거나 侍從 이 아닙니다. 말은 달리 크건 작건간에 國民으로 부터 受任 받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합니다. (憲法 第 71條)

또한 한 나라의 政權은 有限 하지만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公務員組織은 永遠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政黨이 執權을 하면 公務員들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大統領選鬪에서 "金泳三", "金大中", "鄭周永" 또는 그밖에 어느 누가 大統領에 當選되건 우리 公務員들이 흔들리거나 關係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무엇 人類歷史上 가장 理想的인 政治制度가 民主政이라고 한다면 民主政은 道義本位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것이며 民主政의 뿌리는 國民에게 있으며, 民主政의 發露은 반드시 公職社會의 民主化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社會的 政治的 實체는 어떠한가요?

1)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變貌하는 尖端

近代時代에 살고 있으며, 現代產業社會
가 겪고 있는 苦惱는 人間이 物質을支配
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人間이 物
質의 奴隸가 되어 참된 精神的價値
가 제고함을 못하는 社會로서 極端的인
物質萬能과 利己主義 그리고 奢侈와 浪
費를 비롯한 頹廢風潮가 만연하고 있음
뿐 아니라 이 두 양쪽은 各種 社會問題
의 記號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精神的葛藤 : 混沌속에서
새價値와 새秩序를 그리고 새道義觀을渴
求하는 國民大衆들에게 그 所望을 채워줄수
있는 것은 果敢 무엇이며, 누가 이를 打開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政治人들이 人間을 中心으로 한
人本主義 즉 "弘益人間" 이은 "理世先明"이
라는 우리民族의 崇高한 建國理想에 따라
우리 祖上들이 오랜 歲月을 통해서 갖고 있
는 傳統倫理와 美風良俗으로 精神을

純正하고, 道義性을 回復시켜 燦爛한
精神世界를 創造해서 精神世界와 物質
文明이 調和를 이루는 바르고 부단 道義
福祉社會를 建設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렇고도 불구하고 우리 政治圈은 極端的
인 霸權主義와 地域感情이 서로 얽혀
祖國과 民族이 어찌되던 國家와 國民이 어찌
되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執權을 위한 權
謀術數과 黨利黨譽에만 兪眼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執權黨을 비롯한 權力層들의
非道義的이며 非民主的인 行態는 國民
들을 失望시켜 政治圈에 대한 不信이 날로
高漲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不正과 非理는
官權不正濫용의 實相입니다.

우리나라가 建國以後 民主主義의 代名詞
로 불리우는 憲法에 있어서 官權介入과
시달하면 昇進의 慾望外 退職의 두려움

에 사로잡힌 公務員의 弱點을 利用한 官
 權不正 濫用 등을 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지?
 32年間 公職 生活를 通한 나의 經驗으로
 로는 4.19革命 以後에 實施한 7.29 濫用
 權 濫用과는 一前後를 通해하여 오름에 이르기
 까지 모든 濫用을 行政府가 濫用하는 "濫用
 自由"의 時期 濫用을 말하여야 眞正한
 民意에 의한 政權交替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事實은 그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임이나,

3. 政府에서는 지난 尹氏 總選을 史로 類例 없는
 公明 濫用이라고 糊塗라고 했으며 다가오는 大統
 令 濫用을 絶對 公明 濫用을 實施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외치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믿는 國民이
 果然 몇 사람이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라
 나는 오히려 지난 尹氏 總選이 史로 類例
 없는 官權 濫用 濫用이었다는 事實外 다가오는
 大統令 濫用에 있어서도 總選 體制를 그대로
 連繫해서 官權 濫用이 더욱 加進되고 있다는
 事實을 다음과 같이 밝혀두는 바임니라.

1) 먼저 地方自治 團體長 濫用 時期는 三尺童子도
 다 알고있는 일이지만 地方自治 團體長 濫用
 權 濫用을 實施할 時에 大統令 濫用에 地方 濫用
 權을 總動員할 수 없기 때문에 지는 地方
 方議 濫用을 以한 繼續的인 行政 機關을
 通한 地方自治 團體長 濫用 時期 濫用 權 濫
 用 權으로 변하고 있으며 (92. 1. 25 市長 郡會
 議에서 報告.)

한편 團體長 出馬 予想者 (公務員)에게
 같은 平步와 壓力을 가해왔는가 本人의 경우
 內務部를 去한 理由 없는 警告 處分을 받은
 事實이 있음니라 (92. 1. 8.)

2) 우리 忠清 南道에서는 去年 1월 8日자로 道知
 事가 更迭된 바 知事 職任 1年 前에 안
 된 前任 韓 清 洙 知事는 拘力이 없으며 總
 選과 大選을 치를 수 없다고 바뀐 것은 分
 明히 官權 不正 濫用을 저행한 布石이
 있던 것이니

3) 2.16 "鄭夏容" 忠清南道公署管理
室長으로 우리 總進을 맡고 善心事業用
으로 通知事 包括 事業費를 통대니 郡守는
括 事業費를 통대 善心事業을 되고 官
進團體의 支援를 해서 活用하라는 電話通
報를 받았음

4) 2.19. 午後 3시에 新任 "李鍾國" 知事의
指示를 받고 上道하여 通知事 副知事
(朴重培)로 우리 職을 겸고 興黨候補
를 當選시켜야 한다는 指示를 받았으며
그후 地方單位 當面 措置 事項 指示 文을 接
受하였음 親接

5) 2.25. 午後 4시頃에 "李相淵" 內務部
長官으로 우리 興黨候補 當選을 위하여 最
善을 다하라는 勸勵 電話를 받았고 이를
前後해서 靑瓦臺, 國務總理室, 內務部
를 비롯한 各部處의 機關 要員들이 常駐
내지 隨時로 드나들었으며

6) 2.28. 善心事業推進을 위한 內務部特別
交付金 7億이 配定되어 民自黨과 協議
하여 対象 事業을 配定하였으며 몇일후
5億이 追加配定된다는 連絡을 받았음

7) 3.4 午後 2시頃 公署를 거쳐서 "李鍾國"
知事를 爲政院所在 靑島과 204호상에서
秘密獨對하고 濫發資金 500萬원(尙豆)
을 받아 邑面에 配定하였음

8) 3.13. 午前 11시에 "李鍾國" 知事가 "盧奎來"
地域經濟局長을 帶同하고 燕岐管内(郡
廳, 爲政院邑, 全義面)를 巡察(巡視)하고
爲政院邑長과 全義面長에게 濫發資金을 支
給하고 天安으로 올라가 公署를 거쳐 吳奉禧
하였으며

9) 3.15. 午後 5시頃 "李鍾國" 知事의 上道
指示를 받고 知事室에서 濫發資金 1,000
萬원(尙豆)을 받아서 現金으로 代替해서
邑面에 配定하였음(尙豆 900萬원 保管)

10) 3.18. 午前 11시 30分頃에 南面 羅城里

錦江橋 밑 가게에서 32사만을 거처왔다는 "金興泰" 忠清南道內務部長으로 부터 造路資金 500萬圓(現金)을 지원하여 邑面에 追加配定하였음

이와 같이 通知事는 內務部長官의, 郡守는 通知事의 指示를 받고 邑面長을 비롯한 所屬公務員을 總動員하여 其境造路運動을 한것이 事實이며, 이것은 비단 1個道나 1個郡에 局限된것이 아니라 全國的인 現狀이었다는 것은 숨겨수 없는 事實이다.

4.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苦勞와 辛勞의 葛藤을 겪었습니.

1) 문득 "安重根" 義士가 쓴 "個人의 利를 위해 進而하거나 社會正義를 생각하고 國家의 危機에 處하거나 個人의 命을 받거나 (見利思義 見危授命)는 敎訓을 생각하였습니.

지금 우리의 國家의 狀況은 참으로 深刻

하고 重大한 危機에 각처 있다고 생각하니다.

2) 나는 지난 32年間 國民에게 奉仕하는 公職생활을 通해서 國民의 苦勞와 辛勞하는 바를 解決할 때 따라 많은 苦勞를 느꼈습니. 特別히 最近 지난 3年間만 한 地方의 郡守로서 우리나라 固有의 地方自治制라 할수 있는 鄉約의 再現을 主義社會建設과 住民福祉를 위한 民本行政實現에 心血을 기울여 온 것을 큰 苦勞로 생각하니다.

反面에 가장 苦勞웠던 것은 造路청만 돌아오면 公務員들이 官權不正 濫用에 動員될 때 따라 公職을 박차 버리려고 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3) 나는 지난 次 14代 總理에서 얼마 같은 上部指令外 陷된 地域 窮困 때문에 不得已 興院시 補를 지지했던 것이 事

있고, 理由가 어떻든간에 "군수가 여강
부르지" 라는 新尙部道(한려대신부등)
가 나왔을 때 政治적으로 嚴正申를 해대
할 公務員의 良心으로 良心의 苛酷
을 받았습니니다

만약 14代(원종)에서 其黨候補가
當選되었다면 그 다음날 辭表를 내
장하였습니니다

4) 나는 한 地域의 遺孥後遺症 解決을
未報된 地域事務의 마무리를 위하여 3個
月(9月末까지)만 더 勤務하고 自願退
職하였노라고 通知事에게 數次에 걸쳐
懇請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5) 總選에 敗北의 大難치를 能力없다
無氣力인 弱肉弱肉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
습니니다

退職을 3次에 行政内部의 危機監査
를 받았고 外部壓力을 警察搜查를 받

았으나 同意하지 않았습니니다

대로는 退職을 職場 斡旋을 해주고 海
外旅行을 보내주겠다는 誘惑을 받았으나
모두 拒絶하였습니니다

6) 마침내 92. 7. 4자로 憲法上(保障된 國民
의 公務選任權을 박탈하는 功勞研究會退
職이라는 보부人事를 강하고야 않았습니니다
나는 通知事에게 임찌기 孟子가 말씀하기를
"인금이 臣下를 尊貴함이 여기면 臣下는 임금
을 위수근 아니니라(君視臣如草芥 臣視君
如寇讎) 하였다는 말을 傳하고 돌아섰
습니니다

7) 제가 오늘 이자리에 나온것은 보부人事에 대
하여 堂上을 응하러 나온것은 결코 아님
니다

제니이 아찌 닥기것이 넘았습니니다. 무슨
欲心이 있으며, 무슨 野心이 있었습니
까? 나는 지금 拘束당하고 있고, '테러'
를 강행하고 있는 兇惡의 危機를 느끼

고 있습니다. 모든 9월 5일에 제 큰 자식이
結婚을 하는데 ~~結婚式~~ ^{結婚式}에 참석하지 못
할런지도 모르니까

또한 앞으로 家族 등의 생計手段이 퇴
職年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육런지도 모르
는不安을 느끼고 있습니다

8) 그러나 나는 公務員이 權威主義的制度的 특
속에서 上司의 不當한 命令에 服從하는 것이
公務員의 義務가 아니라 民主的制度的
定着과 發展을 위해 現實의 限界를 뚫
어 넘을 수 있는 勇氣와 實踐이 바로 國民
全體에 대한 奉仕의 義務라고 생각합니다
나 한사람의 犧牲을 통해서 公務員
全體의 申訴와 身分이 保障되고, 나
아가 이 나라의 참된 民主政治가 實現
된다면 監獄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두
려울 것 없으며, 아무 餘限도 없습니다.

5. 끝으로 지금 나의 心情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두운 隧窟을 헤매다가 그 짐을 벗어버리고

밝은 世道에 나온 상쾌한 氣分입니다.
다만 이 宣稱을 위해서 나와 관련이
있는 上司와 同僚들에게 身分과 위해가
동아가지 憂鬱을 바랄 때입니다

1992年 8月 31日

發表者: 書記官

燕波郡守 韓峻洙

3. 군인양심선언

1)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서기 위하여 이동균 외

가. 사건개요

1989. 1. 5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육군 보병 제30사단 소속 이동균 대위 김종대 중위 2명이 이청록 중위 박동석 소위 권균경 소위 등 5명이 서명한 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군 명예선언』을 발표. 그 후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 이등병 제대, 3월 17일에 김종대 중위가 테러당함.

나. 신상

• 이동균(당시 계급 대위)

생년월일 : 1961. 1. 25

본 격 : 전북 정읍

주 소 : 전북 이리시 평화동

경력 : 경희대 토목공학과 졸. 84년 육군 소위 임관(R.O.T.C 21), 87년 1월 보병 제 8사단 공병대대 소대장. 참모, 89년 1월 보병 제 30사단 공병대대 중대장

• 김종대(당시 계급 중위)

생년월일 :

본 격 : 충남 대전

주 소 :

경력 : 목원대 건축과 졸. 87년 육군 소위 임관 (R.O.T.C 25기) 89년 1월 보병 제 30사단 공병대대 소대장

• 이청록(당시 계급 중위)

경력 : 충북대 건축과 졸. 87년 육군 소위 임관(R.O.T.C 25기), 89년 1월 보병 제 30사단 공병대대 소대장

• 박동석(당시 계급 소위)

경력 : 경기대 토목과 졸. 88년 육군 소위 임관(R.O.T.C 26기), 89년 1월 보병 제 30사단 공병대대 소대장

• 권균경(당시 계급 소위)

경력 : 경기대 토목과 졸. 88년 육군 소위 임관(R.O.T.C 26기), 89년 1월 보병 제 30사단 공병대대 공사장교

다. 명예선언문

반만년 역사혼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뜨거운 조국애로 일관해온 바 민족적인 아픔을 안겨주고 조국 민주화 열망에 누를 범한 불명예를 과감히 청산하고 총체적 사회체계의 상향운동에 앞장섬으로써 후손과 역사에 부끄럽지않은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존재로서 깊이 인식하고 국군의 이념 사명에 따라 행동, 지시, 명령하며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둘, 우리는 올바른 사고, 올바른 행동으로 명예를 실현한다.

셋, 우리는 불명예로 군을 이끌었던 정치 군인들에게 진실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

넷, 우리는 정치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외에 군의 엄정한 정치 중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한다.

다섯, 우리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 밖의 개인에 대한 맹종을 단호히 배격하며,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여섯, 우리는 인내와 반성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군대로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일곱, 우리는 그동안 사회부조리의 온상이었던 집단적 이기주의를 배격하여 밝고 공정한 사회 창달에 기여한다.

이상으로 우리는 민족과 국가의 생존권 보장과 민족혼의 계승을 위한 민족적 양심을 보장하는 것에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천명합니다.

1989. 1. 5

대위 이동균

중위 김종대

중위 이청록

소위 박동석

소위 권균경

2)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숙원의 과제

정광민

가. 사건개요

1988년 6월 8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수배중 민족자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89년 6월 3일 육군 헌병단에 의해 검거, 수방사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 받았다.

나. 신상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소속 :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3대대 31중대 2소대

계급 : 일병 - 군번 : 13849310

생년월일 : 1967. 8. 20

강릉대학 독어독문학과 2년 휴학(87. 12. 28 육군입대)

다. 양심선언문

이땅에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께 !
저는 수방사 헌병단 소속 일병 정광민입니다.

강원도 강릉 주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중·고 대학을 다니다 지난 87년 12월 28일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후 논산, 성남에서 교육을 마치고 수방사 헌병단으로 5월 7일 전입오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공동개최를 통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고 부르짖으며 젊은 청년 학생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가고 있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즈음에 6월 6일자 신문을 통하여 6.10 학생체육회담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실천해 가려는 노력들을 보고 군인의 신분이지만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든 이 대열에 참여하여 조국통일에 이 한몫 바쳐야하겠다는 의지에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조국 한반도를 통일로 이끌어 나가느냐 아니면 분단을 더욱더 고착화시키느냐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더니 웬말입니까? 또한 이 땅을 분단화 시킨이는 그 누구이며 분단을 더욱더 고착화하여 이득을 보는 이는 그 또한 누구입니까? 저 양키놈들과 그들의 하수인 군사 파쇼정권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가장 숭고한 마음으로 국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군인을 이용하여 그들의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 입대하기전에는 강릉대학 독어독문과 2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속문화연구회라는 씨클회를 통하여 조금씩 사회를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분단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 분단의 책임자인 미국과 그에 빌붙는 매국 세력인 군사파쇼정권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모순덩어리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군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것은 국민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에 들어가서 또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느낀점은 국민의 군대로서 젊음의 황금기를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독재의 파수꾼으로 비민중적 군대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적을 이겨야 우리가 살수 있다하여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건강하고 올바른 정신을 일깨우기보다는 군부독재자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고 국민의 군대를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분단을 더욱더 고착화 하려는 분단 이데올로기 교육인 것입니다.

진정 이땅을 지키고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누구입니까? 수십만의 젊은이들은 바로 이땅 한반도의 주인인 민중의 아들입니다. 그들을 이용하여 온갖 불의와 부정의 방패나 위협수단으로 만드는 저 간악한 무리들은 이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학살은 양키놈과 군부독재가 저지른 만행중에 가장 대표적인 민중탄압이었으며 그 수단으로 국민의 군인을 왜곡하여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신성한 국토, 국민수호의 사명을 가진 군이 왜 국민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또한 군복무를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쁨과 보람으로 군생활을 하기보다는 별탈 없이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면서 젊음의 황금기를 허송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군대라는 신성한 모습을 저간악한 독재자의 무리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그 때문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생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땅의 젊은이들이 군대가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복무기간을 보

람으로 여기며 국민으로부터 떳떳한 격려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동족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댄 것도 군복을 입은 젊은이가 아니라 충혈된 눈으로 권력을 탐하던 극소수의 미꾸라지들이 미국의 사주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그 주모자들을 국민대중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을 위하여 순결하게 펼쳐일어선 애국청년, 학생 그리고 애국시민을 폭력과 협박으로 가로막는 군부독재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분단의 원흉인 미국놈들은 한반도를 전략기지화, 핵기지화하여 식민지로 간주하는 등 군사독재자와 더불어 통일을 원하는 척 국민들을 호도하여 가며, 실은 분단을 더욱더 고착화하여 제놈들이 배부르게 사는데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증스럽게도 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온갖 술수와 협박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원하는 4천만 민중들은 끝내 승리할 것이고 분단의 원흉인 양키놈과 그들의 하수인 독재정권은 이 땅에서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6.10 회담과 올림픽 공동개최를 반드시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4.19 이후 것처럼 통일을 염원하던 애국학생에게 반공 이데올로기로 수없이 검거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더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관·언론에서는 한결같이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년이 흘러도 똑같이 때가 아닌것이 통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언제쯤 한민족이 서로 부둥켜안고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 것입니까? 미국과 분열주의자들의 반민족적행위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 통일은 미래의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같은 좋은 기회를 간악한 군사파쇼정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의 힘과 국민의 손으로 이제 통일을 이룩해

야 할 것이고 그 첫걸음으로 6.10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44년간의 불신과 오해를 청산하고 한민족 대동단결하여 공동올림픽을 성사시켜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숙원의 과제를 떨쳐버리고자 일어났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관제 이데올로기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한반도의 아들 딸들이여! 진정 참되고 가치있는 삶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와 진정한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하여 조금

만 더 열심히 투쟁, 투쟁할 것을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위의 글은 정광민 일병이 6월 7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소속부대를 나와 6월 8일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국내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3) 군은 국민의 군대이어야 합니다.

박길남

가. 사건개요

89년 1월 7일 한양대 학생회관 4층 「서울지역 총학생연합」에서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발표. 선언문에서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 반공이데올로기 강요하는 정신교육반대, 광주학살과 군대내 의문사 진상규명, 불합리한 자대배치와 인사비리 시정 등을 요구. 수배중 『민족자주군대쟁취위원회』에서 활동중 89년 6월 3일 육군 헌병단에 의해 검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 받았다.

나. 신상

주소 : 부산시 남구 감만 1동

소속 : 보병 제35사단 105연대 3대대 2중대

계급 : 이병

군번 : 51141746

생년월일 : 1967. 7. 14

약력 : 86년 부산 외국어대학교 1년 중퇴

87년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년 휴학

87년 8월 육군 제 39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다. 양심선언문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국토를 방위하며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해야 할 군대가

미국과 군사독재정권의 안정적 지배질서의 수단으로 되어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는 양키의 용병, 파쇼의 군대로 전락되고 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일 수 없는 대한의 국군은 비민주적·반민중적 요소가 극에 달해있는 반동의 군대가 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저는 일개인의 탈영병으로서가 아닌 전민중의 염원인 민주와 통일을 갈망하는 한 소총수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으로 대한의 군대가 하루속히 민족자주군대로의 질적인 전환을 해나가야 함을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마땅히 철폐·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살인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하여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장병(특히 신병)들의 탈영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이 부분은 군대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국 강토를 지키고자 젊음을 바치겠다는 건전한 사고로써 군복무에 충실히 임하려는 많은 신병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구타와 고학행위는 심한 경우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자살의 상황으로까지 몰고갑니다. 민주군대임을 자처하는 현 대한도 안되는 논리로 맞아죽는 사례가 허다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탈영을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합리한 자대배치와 인사문제에 대하여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는 대한의 군은 기실은 가장 불합리화하고 불평등한 모순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온갖 부조리가 만연합니다. 단적인 예로, 신병교육대나 훈련소에서 자대로의 배치과정을 보면 돈있고 권력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편안한 군생활을 보장받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민중의 아들들은 운이 따르면 조금 편한 곳으로 배정받기도 하나 절대다수가 열악한 해안이나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분명 다같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권력, 재력 아니면 학벌로써 평등을

보장받는 불합리한 정상적 형태로써 존재하는 것이 현 대한의 군대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정신교육(반공교육)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필요를 느낄 수 없는 하루종일씩 강행되는 소위 정신교육의 이름하에 반공교육은 세뇌학 작업입니다. 부모 형제들의 노동현장에서의 파업, 학교의 데모 등을 진저리나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북의 동포 이천오백만을 적으로 규정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부모형제들에게도 유사시의 적으로 규정하는 모순덩어리 교육, 분단교육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역병과 방위병들간의 문제, 하사관들간의 문제 등은 심각한 상황이며, 병들과 상관들간의 불신의 벽은 나날이 두터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째로, 광주학살의 군대내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하여

민족의 비극 광주학살과 억울하게 죽어간 군대내 의문사의 진상규명없이 이 땅의 민주와 나아가 통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군의 일차적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마 전두환·노태우 일당의 안정적 지배를 위해 반민중적·반역적 정권탈취의 음모를 위해 진정 국민의 군대이어야 하는 이 땅의 군대가 우리의 부모를 총칼로 학살하고 형제를 의문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오욕의 역사를 반드시 규명해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

오늘도 밤잠을 설쳐가며 철책을 지키며 고생하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가 그대로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로 이어지는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제 군국주의자들과 군사파쇼정권의 두개의 한국 정책으로 영구분단의 오욕의 분단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이들 한중도 안되는 독재의 무리들이 독점자본들을 위해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민주와 통일을 기여 하는데 국군이요 부당한 명령은 집단적으로 거역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미국의 군부독재의 용병으로서 그들의 전유물로서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민족자주군대로서 조직내해야 합니다. 분단의 긴 어둠속에서 피지도 못하고 가버린 수많은 애국의 형제들을 위해 우리군은 미국놈과 독재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총부리를 겨누어야 할 대상은 동족의 가슴이 아니라 미국놈과 군부 독재일당들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군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없는 그날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해방의 조국 근대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애국장병 여러분!

4) 평화통일은 우리모두의 소원

서영완

가. 사건개요

89. 4. 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문익환목사 구속항의, 국가보안법폐지,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등으로 양심선언후 수배투쟁. 이후 검거되어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 신상

소속 : 육군 보병 제28사단 82연대 2대대 5중대
 계급 : 일병
 생년월일 : 1967. 10. 15
 중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옥 2리 342번지
 학력 : 충남대 영문과3년 휴학, 입대

다. 양심선언문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60만 장병 여러분!

해방이후 지난 45년간 이땅은 분단을 통해 한반도를 자국의 식민지로 이용하려는 미국과

당부합니다. 신병들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의 전 통일 수 없으며, 그따위 일제식 군사교육의 일환인 구타와 가혹행위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민족 자주군대로의 그 위대한 첫걸음은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의 군은 미국놈의 용병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정권의 지배수단으로써 존립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오직 육천만 민중의 일원인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국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민중의 군대임을 애국 장병 여러분께 전합니다.

통일염원 45. 1. 7

1989. 1. 7

그들에 빌붙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역대 독재정권들이 입으로는 민주화와 통일을 이야기 하면서 막대한 물리력을 동원해 애국민주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해왔습니다.

역대의 친미독재 정권들은 한손에는 안보와 반공이라는 칼날을 쥐고 또 한손에는 가공할 만한 폭력을 무기삼아 집시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제반 악법을 통해 국민의 어떠한 통일을 위한 노력도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7월 노태우는 소위 7·7선언이라는 것을 통해 전국적으로 끓어오르는 국민의 통일 의지를 순간적으로나마 무마시키기위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교류 추진을 제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7·7노태우 선언이후 남북한 민간차원의 어떠한 만남에 대한 건의나 협조요청도 폭력으로 거부,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25일에는 문익환 목사님이 민족통일의 한을 안고 개인적으로 평양방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정부가 탄압해온 민간차원의 교류에 대한 어쩔수 없는 결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평생토록 민족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문익환목사님에 대해 방북기간중 온갖 악선전을 일삼고 귀국 즉시 구속한 현정권 아래서 국방의 의무 감당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수호함으로 올바른 민주국가 건설에 이바지 해야할 숭고한 사명과 의무가 있는 군대가 오직 "별공통일", "적화야육 분쇄" 등을 주장해온 것은 "민족의 평화와 대단결"을 천명한 7·4남북 공동성명에도 위배되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의지에도 위

배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땅의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군대에서 푸른 제복을 입은 군인이라고 그것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땅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조국"이라는 두마디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신도 그리고 군대에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저의 동지들도 민족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민족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60만 군인들에게도 생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기에 본인은 여러분 앞에 올바른 민족, 민주군대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저의 양심을 걸고 선언합니다.

나의 주장

1. 국가보안법, 집시법, 사회안전법을 즉각 폐지하라!
2. 군은 더 이상 독재정권의 유지의 수단일 수 없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3. 민족·민주 군대를 건설키위해 모든 사병과 장교들의 언론·사상·독서·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분단 이데올로기 조장하는 정선교육을 거부한다. 평화통일교육 실시하라!

5) 민족자주군대의 한사람으로

장문걸

가. 사건개요

89년 6월 13일 한양대 전대협 사무실에서 “방위병 해체”, 충정훈련 중지, 전두환 구속 처벌, 민주인사 석방등을 내용으로하는 양심선언후 탈영. 현재 수배중

나. 신상

소속 : 공군본부 본부사령실 시설대대

계급 : 이병

학력 : 한양대 토목공학과 4년 휴학. 88년 10월 입대

다. 양심선언문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민족 자주군대를 위해서 싸워온 애국적 군인, 전경 형제가 불법 연행 구속되었다.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힌 조국의 현실과 독점자본가들에 의해 착취받는 민중을 위해, 또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민중들을 총칼로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와 이를 배후 조종한 미국을 응징하기 위해, 군대내의 비민주적, 반민중적 상황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억압하는 군의 현실과 가혹한 구타, 기함, 살인적 훈련으로 전·노 정권하에서 3천여명이 죽어가고, 애국적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군사파쇼의 사병으로 전락된 전투경찰을 해체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양심선언을 통하여 녹슨 철조망을 없애고 하나된 조국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온 형제의 구속을 접하면서 국민의 한사람, 민족자주군대의 한사람으로서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성스러운 투쟁에 동참하고자 한다.

극단적인 반공, 반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우리의 형제인 북한 동포들에게 총구를 겨누게 하는 반민중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고 전투방위를 만들어 자기의 부모, 형제에게 물리적 대립을 강요하고 군의 의무라고 굴레속에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피로 물들인 광주학살의 행위자인 우리 선배들처럼 반역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않겠다는 애국적 충정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형제들에게 그들은 차디찬 감옥으로 쳐넣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광주 시민 2,000여명을 총칼로 학살하고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또한 온갖 비리로 점철된 5공화국, 그리고 기만적인 6.29선언을 통하여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희석화시키고 원천적인 부정선거로 들어선 노태우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민주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권 요구를 좌경·용공으로 매도하면서 백골단과 파쇼의 사병인 전투경찰, 전투방위를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적인 공안합수부를 만들어 애국적 학생,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을 대대적으로 구속하고 고 이철규 열사의 고문치사를 은폐조작하고 있다.

파쇼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애국형제들, 오늘도 부모형제와의 대립을 강요하는 매국적 도발행위를 그들은 서슴치 않고 있다. 군부독재의 사병으로 전락하고, 또한 미군의 강점으로 작전 지휘권을 잃어버린 것에 민족자주군대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필연적인 임무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몰아내고 군부독재를 타도하여 민족자주군대를 쟁취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민중의 생존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작전 지휘권 반환과 미군철수를 통한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하고 자주적 군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적들의 손아귀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들의 의로운 싸움을 지지하며 아직도 이 싸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수많은 애국적 군인들도 함께 민족자주군대가 건설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6) 155마일의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서준섭

가. 신상

소속부대 : 군수사령부 탄약 사령부 제8탄약장 1탄약 중대

성명 : 상병 서준섭

생년월일 : 1968년 7월 29일

출신학교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년 휴학

나. 양심선언문

저는 1989년 5월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겠다는 열정으로 입대하여 군생활을 한지 13개월. 그간의 군생활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현시대의 젊은이인 저에게 적지않은 고민과 갈등을 일으켜준 시간이었습니다.

의무복역에 의해 규정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는 인격도 이성도 허용치 않는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세면의 자유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신병의 비참한 생활은 군의 반인권적인 모습의 한면입니다. 자주적 인간성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편협되고 오도된 민족관과 역사관을 강요하며 자주·민주·통일을 부르짖는 청년학생을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을 좌경세력 공산주의라 매도해 버리는 것이 군대의 교육방식이었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상징하던 동서냉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45년간 분단되었던 동서독이 통일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조국 한반도는 155마일

의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백만여명의 병력과 최신식의 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데올로기의 낡은 사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작전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 또한 지구상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전액부담은 국방예산 50%를 투여하면서 까지 이를 주둔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000여개에 달하는 핵무기와 핵기지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제의 오랜 한반도 식민지 정책을 통한 남한의 대소전진기지화, 이데올로기의 격전장 그리고 수입개방을 통한 경제수탈의 식민지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미제와 야합한 친미정권은 그들의 시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며 농민은 빚더미에 허덕이든 말든, 노동자는 산업재해로 병신이 되어가든 말든, 청년학생들은 감옥으로 가든말든 독재권력의 유지와 장기집권을 위한 갖은 책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3당야합

을 통해서 그리고 군령권을 1인에게 집중시켜 군의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국군조직법의 날치기 통과를 볼때 그들의 속성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는 군축을 주장하며 무기를 감축시키고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의 생산을 제도적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80만이 넘는 세계최강의 군대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핵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군축을 선전적 차원에서 이용하였고 군축회담 군축에 관한 학술회의를 하고 있는중에도 전투기를 수입하는 기만적 속성을 보여왔습니다. 세계는 냉전의 논리에서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자주화에 대한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땅에서도 미군은 반드시 철수되어야만하고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재 체결되어야하며, 진지한 군축회담으로 상호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노태우 정권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무기삼아 이땅 청년들의 엄청난 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등 온갖 악법을 휘두르며 조국통일을 부르짖는 애국인사를 연행 투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은 자주화·민주화를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구당 600만원의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촌의 현실. 그속에서 신음하는 농민의 자살은 그리고 수많은 재해환자들이 죽어가고 병신이 되어가는 노동자의 모습은 진정한 이땅의 주인의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재화가 전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인인 열혈 청년들이 민족분단을 영구화하는데 소모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절대절명의 요구입니다. 노태우 정권은 반민중적 3당야합을 통해 미제와 독점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열망하는 민중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탄압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기만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하나. 반민중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법안 국군조직법을 폐기하라!!

둘. 민족의 생존권을 일거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철수하고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라!!

셋. 통일의 걸림돌이며 미제의 대소침략 전진기지로서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강점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하라!!

넷. 평화통일의 걸림돌이며 준전시상태를 방불케하는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라!!

다섯. 남북한 군사력을 즉각 10만이하로 감축하라!!

여섯. 가혹한 군사훈련과 군기 안전사고로 사망한 분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라

일곱. 장기집권 영구분단음모인 민자당을 해체하라!!

7) 민중특별재판소로 통제와 감시없는 사회를

윤석양

가) 사건일지

소속 : 제3사단 22연대 본부중대

계급 : 일병(군번 : 23455925)

주민등록 번호 : 660710-1030211

85년 3월 한국 외국어대 노어과 입학

88년 8월 4학년 제적

90년 5월 1일 군 입대

90년 7월 말경 보안사에 연행됨(서류상에는 3사단 군건소대에 배치)

이후 기무사 서빙고 분실에서 군무

90년 9월 23일 탈영

90년 10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보안사의 대 국민 불법사찰 폭로 양심 선언

92년 9월 23일 오후 9시 20분 대구 대명동 광서방 횃집에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연행됨

92년 9월 24일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제 3사단 헌병대 영창에 수감됨

92년 10월 30일 육군 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구형 5년에 3년의 실형을 선고, 현재 장호원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

나) 양심선언문

노동자 동지들! 민중여러분!

우리는 오늘 박노해 동지등과 같은 수많은 노동해방주의자와 전노협, 전농, 전교조, 전대협, 전민련은 물론이고 종교계, 언론계, 학계 나아가 평민, 민주당 심지어 이미 반동이 된 김영삼에게까지 가해지는 국가권력의 철통같은 정치사찰 정보감시통제체제를 생생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총리회담에 따른 남북통일의 아우성으로 반도가 진동한 어제, 연일 금메달을 쏟아붓는 아시안게임에 넋을 잃고 환호하는 오늘도 여전히 정치권력의 감시의 고삐가 늦추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자칫 방심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이럴때일수록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퍼런 칼날이 섬광을 번뜩이며 더더욱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나아가 전신

전화국, 우체국, 시청, 구청, 동사무소, 통·반장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온갖 정보기구·행정단위에 의해 저질러지는 감청과 도청·미행·주민등록 시스템·각종 명목을 빙자한 호구조사·불신검문·비상방범령·반상회 등 도처에서 살기를 받으며 도사리고 있는 통제와 억압도 마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지들!

바로 이속에서 노동자계급·민중에 대한 적들의 전형적이고 대대적인 탄압과 만행을 주목하게 됩니다. 확실히 정치권력의 물샐틈없는 정보통제·정보독점·감시와 경계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 노동자계급과 민중투쟁의 한복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문익환목사님의 방북으로 개시된 전민련에 대한 탄압에서부터 전국의 노동상담소, 민주노

조에 대한 대대적인 침탈, 나아가 인민노련·노동계급·상민동맹·혁명노맹·사노맹의 와해·도륙에 이르기까지 파쇼권력의 감시카메라와 총부리는 그 폭과 깊이에서 정치 노동자 계급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와같은 정보통치·정보감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보안사가 있습니다.

언론통폐합과 삼청교육의 진두집행자이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총책임자였던 보안사! 제일교포에 대한 악랄한 간첩조작과 물고문, 전기고문, 인간파괴규, 엘리베이터 고문 등 별의별 기상천외한 살인고문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능욕·파괴했던 보안사! 그러다가 88년 국정감사에서는 제입으로 일신 또 일신하다가 거듭 공표했던 보안사!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미 1년도 더 지난 해묵은 전력을 시비삼아 현역군인 10명을 혁노맹·민학투련의 조직원이자 혁명군대 창설목적의 군투입자로 진력 구속하는 등 또다른 차원의 조작수사를 자행하는 것이 다를 뿐이며, 삼민동맹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치안본부가 담당하는 듯 위장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안사 자신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는 등 보안사라는 성격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기·협잡술을 개발한 것이 새로와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법이고 뭐고 거추장스러운 허접쓰레기는 그냥 무시한 채 정면에서 칼자루를 휘둘렀던 것이 이제는 그나마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금지라는 법조항을 어느정도는 의식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정보수립과 신분위장을 위한 출판사·룸싸롱 등의 위장업체를 경영하면서, 결국 대중과 법의 수면 밑에서 서식·번식하는 것이 변했을 따름입니다.

항간에서는 이를 두고 보안사의 정치사찰금지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주지하다시피 정보기구에는 공은 보안사 이외에도 안기부·치안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사는 군인과 공무원, 치안본부는 민간인을, 안기부는 이 둘을 통괄합니다. 보안사의 민간인사찰행위 금지요구는 기실 원래의 법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인데, 이는 보안사에 대한 압력은 되겠지만 그와 정비례하여 안기부·치안본부에게는 박수로 환영받을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온갖 형태의 통제와 감시 그 자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으면서도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본가 계급에 맞서 노동의 성과물을 정당하게 소유하고자 투쟁하는 노동자계급·민중에 대한 정보통치로 전체를 문제삼습니다. 보안사인가, 아니면 안기부·치안본부인가를 두고 따지는 것은 노동자계급·민중이 현대에 뜯어먹히는가 삼성에 뜯어먹히는가를 두고 따지는 만큼이나 의미없고 헛된 일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요구는 또 어떠한가?

현재 평민·민주당은 민자당의 전횡·폭거에 항의하며 국회동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하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동원의 적절한 명분을 찾기에 고심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국회동원의 놓칠수 없는 합리적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하다면 많은 투쟁을 위한 국회거부, 총사퇴가 투쟁을 위한 동원·국정조사로 마무리되는 희극이 아닐 수 없으며, 총사퇴결의는 민중의 대의의는 무관한, 민자당의 급조에 따른 국회내 발언권의 약화라는 지극히 당리당략적인 협잡에 불과할 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완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청문회를 통한 5공비리·광주학살 진상규명이라는 2년전의 경험이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는 최근의

잇따른 5공주범의 석방·출감만 보아도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동지들! 민중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정보기구를 총동원한 파쇼의 탄압의 예봉, 그 끝에는 노동자계급·민중이 있기에, 그 칼날은 우리들 투쟁의 참모부·핵심을 가결하고 있기에, 그 결과 지난 3년간의 계급투쟁의 온갖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고 깨어지고 짓밟힐 위기에 처해 있기에 이제는 노동자계급·민중이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해야 합니다. 정보기구·정보경찰의 주민감시통제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 및 정보기구·정보경찰 분쇄를 위한 민중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민중특별재판소!

이는 무엇보다 민중의 무장에 근거해야 하며, 소환권·조사권·파면심판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갖지 못한 채 단지 조사나 하고, 단지 진상이나 규명하고 단지 국회에 청원서나 띄우는 것으로 유야무야 해산하는 무기력하고 무정부적인 재판소가 아니라 민중의 민주주의적 질서를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민중재판소가 긴급합니다.

동지들!

형태의 불만사항을 토해낼 때에도 그간 우리는 얼마나 쉬쉬하며 자신도 모르게 이눈치 저눈치 살피다가 결국 가슴에 삭이고, 또 삭이곤

했습니까? 정보경찰이 곳곳에 심어놓은 수백·수천의 우글거리는 프락치, 경찰끄나불들로 인해 우리들 불신과 반목의 벽은 얼마나 두꺼워졌습니까? 끊임없는 감청과 도청·신고로 우리들 생활의 나날은 그 얼마나 질식할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악한 파괴공작인 고문으로 인해 쌓여만 간 동지들의 차디찬 주검은 그 얼마이며, 반죽음·반병신이 된 채 병동을 헤매이는 친구들·동지들은 또 얼마나 됩니까?

침단의 전산망, 컴퓨터를 총동원하여 일상적이고 구조적으로 자행되는 감시와 통제속에서는 결코 민중의 안락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자유로이 말하고, 자유로이 듣고, 자유로이 조직을 결성하고, 자유로이 책을 찍어내고, 자유로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어찌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유롭다 할 수 있습니까? 보안사에 의한 혁노맹사건 조작은 파시즘적 정보통치하에서 소위 용공이든 자유롭지 못함을 만천하에 환하게 입증했습니다.

광주무장봉기 11년 10월 4일

육군제3사단 22연대 8중대 3소대 이병 윤석양
(군번 23455925)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4년
제적

8) 6공화국의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녹화사업을 폭로한다.

최흥기

가) 사건개요

최흥기 이병은 91년 4월 15일 연세대학교에서 6공화국의 녹화사업으로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함. 이 사건으로 합법의 탈을 쓴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5공화국 때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6공화국의 신종 녹화사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기무사의 윤석양 이병에 대한 프락치 강요, 91년 2월의 남현진 이병의 의문사 그리고 최근의 각종 군과 관련한 조직사건등은 최이병의 진실내용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나) 사건일지

일시	내용
1989년 3월	군산대학교 제어계측 공학과 입학
5월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공과대 학생회 준비위원장
6월	공학관 조기건립 및 실험실습 기자재 생취를 위한 투쟁위원장
7월	농촌봉사활동 위원장
10월	전교조 벽보작업 도중 연행·불구속 입건
12월	자연과학 동아리 '과학과 인간' 회장
90년 1월	대천지역 전교조 후원회 참여
3월	신입생 환영회 "환경오염, 반전반핵 VTR" 상영
4월	군산 동양화학 TDI 독가스 공장 철거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5월	인도 보팔시 포스겐 가스 참사 사건 사진전
7월	대천경찰서 정보과 연행(대천지역 전교조 후원을 중단할 것을 강요당함. 이에 구타를 당하며 발로 차이고 먹살을 잡혔으며 몇차례의 따귀를 맞음)
8월	대천 경찰서 정보과 소속 사복 경관이 강제 연행(이동중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으며 경찰이 외상을 입음) 도중 도주함. 지역수배에 걸림
9월27일	휴학계 제출

12월20일	입영영장 통보 받음
12월21일	입영영장 연기해 줄 것을 면사무소 담당직원에게 강력히 항의. 연기할 수 없다고 거절함.
91년 1월15일	면사무소 병사담당계 직원이 집으로 전화함. 신변 이상 없냐는 것과 건강 괜찮으냐는 점과 입대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는 등의 내용
1월17일	논산 제2 훈련소 입대(4박5일동안 대기)
3월8일 오전10시	퇴소식을 함(비가 몹시도 왔었음)
오후8시	각부대 대기하는 곳의 명단을 부름
오후10시	연무역에서 기차를 탑
3월9일 새벽 6시	의정부 용현동 306보충대 도착 눈이 많이 쌓여 있었음
저녁8시	트럭을 타고 1시간 정도 이동
저녁9시	트럭을 내리라고 하였으며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감. 현판에는 보안부대라고 명시됨. 건물 내부에서 복도 끝에서 3번째 방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함. 방으로 들어서자 시계를 풀라고 하고 시간을 모르는게 낫다고 하며 시계를 압수함.
저녁10시	문서철과 백지 몇장을 들고 키가 큰(180센치 정도) 사람이 들어옴.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을 내보내고 자리에 앉음. 문서철을 들썩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음. 이때 침묵이 흘렀으며 옆방에서 욕박지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음. 한참후에는 문서철을 잡고 "사회에서는 잘도 피해 다녔지만 그러나 군대에서는 어렵었다"라고 협박 비슷하게 말 함.
저녁11시	슬라이드 상영을 함. 내용은 학생 시위내용, 노동자파업 내용등이었음. 상영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 함. '느낌없이 보았다'고 하자 '대학생 정도 되는 놈 그것도 모르느냐'며 자존심을 건들임.
12시경	백지 몇장과 필기구를 건네주며 '내가 바라는 사회와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백지로 쓰라고 함. '현정권은 안정적이 미국은 우방이고 살기좋은 나라이다'라고 썼음. 그러자 화를 벌컥 내면서 '나를 병신 취급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느냐, 요즘 대학생들은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사느냐'는 등 존심 뿐만이 아닌 심리적 위협감을 줌.

3월10일 1시경 '내가 몹시 피곤하니 쉬었다 하자'며 눈썹 잠깐 불이라고하고 나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6시쯤 깨움.

6시경 7시 밥을 먹으라면서 밖에 서 다른 사람이 밥을 갖고 들어옴. 학생운동시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기재할 것을 강요받음. '학생운동에 별다른 활동없었다'고 극구 부인하자 다시 화를 내면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는 양심도 없냐,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떠들어 대던 정부 비판을 날날하게 떠들어 봐라'라고 함. 10차례의 강요로 다시 글을 씀. 시종일관 같은 내용을 되풀이 함.

12시 밖에서 밥을 갖고 들어옴. 식사를 들고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다알고 있으니 바른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함.

1시 다시 조사가 시작됨. '학생운동 당시 활동내용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명단을 적으라'고 강요함. '모르는 일이다',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자 '너하고는 말이 안통한다. 너는맞아야 한다'며 협박을 함. 협박도중에 옆방에서 계속 욕박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무척 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듦. 다시 쓸 것을 강요 받음. 이것을 10여차례 계속함.

5시 다시 대기하라고 말하고 나감.

5시30분 다시 들어옴. '다알고 있으니까 바른대로 얘기하면 편한 부대로 배치시켜 주겠다'고 회유함. '알고 있으면서 뭘 더 알려고 하느냐, 편한부대 필요없다'고 말하자 '너와는 말이 통하 지 않는다'며 밖으로 나감.

8시30분 비디오 상영 소감문을 작성하라고 함. '감명 깊었다. 아주 잘됐다'라고 썼음. 아무런 말이 없었음.

8시43분 압수했던 시계를 돌려줌

8시43분 압수했던 시계를 돌려줌. '수고했다. 너같은 놈은 악질이다. 너같은 놈은 처음 보았다. 군대(자대)가서 고생 좀 해 봐라.'라고 말하고 나가라고 함.

8시45분 정문 앞에 있는 트럭에 승차함.

9시45분 의정부 용현동 306보충대로 이동 저녁식사를 함.

10시45분 취침을 하라고 함.

3월11일 아침10시 자대 배치와 자대 위치를 불러줌. 306보충대에서 4시까지 청소를 하면서 대기를 함.

오후4시 2군수 사령부로 출발, 5시에 도착함.

오후5시 간단한 신고식을 치룬뒤 충성통합 교육대로 이동함.

오후6시 충성 교육대에서 2박3일동안 대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쉬다가 자다 가라고 말함.

3월13일 오후4시 충성 통합 교육대에서 자대로 이동하기 위해 트럭에 승차함.

오후5시 경기도 포천군일동면 5163부대 대대에서 2박3일 동안 신고하기 위해 대기함. 조교들이 5163부대는 6개의 독립중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2박3일동안 부대 청소를 하면서 대기함)

3월16일 오후4시 신고식을 5163부대장에게 치르고 805 독립중대로 이동함.

오후6시 805독립 중대에 도착, 고참들이 들고왔던 더블백(의류대)를 갖고 들어감.

6시30분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해서 밥을 먹음

7시30분 인사계와 간단한 면담을 함.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은 '괜히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이나 하게 되고, 빨갱이 밖에 되지 않는다. 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한 것.

8시30분 내무반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고참들이 말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함.

9시30분 일석 점호를 취하고 일찍 자라고 함.

3월17일 아침 6시 기상을 해서 일조 점호를 함. 일조 점호도중 고참들이 끌고 감. 대략 6명 정도가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가 구타를 30분간 실시함.

6시30분 아침청소를 실시함. 아침청소에서 열외시키고 10명 정도가 나를 데리고 다시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감. 30분간 구타를 당함.

7시 아침식사를 하러 식당을 올라감. 아침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취사장 뒤편으로 끌고 감. 30분간 구타를 강행함.

8시 명령하달 시간임. 이 시간에 중대장은 '자신은 특공연대 소속으로 내가 원하는 군대의 뜻에 맞춰 사병들이 따라오기바란다. 못치면 어느 중대, 대대 못지 않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함.

8시30분 하루의 일과가 시작됨. 모든 사병들이 특기에 맞춰 각 부서에서 담당 훈련을 하는데 이상하게 열외를 시킴. 삼을 들고 따라들어오라고 함. 하수구 구덩이 평탄 작업을 하라고 함. 악취화 물이 고여 썩어 냄새가 무척 심했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수구에 들어가 삼을 들고 평탄 작업을 실시함.

9시30분 10여명이 몰려와 '사회 있을 때 네가 그렇게 잘 나가던 학생운동권이었다'며 추궁을 함. '아니라'고 부인하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말잘하는 빨갱이 한마디 지껄여 보아'고 함. '정말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하자 시궁창 오물을 발로 짓밟으며 군화를 들이 댐. '그 잘만 헛바닥 내 군화 밑에서 글러 보아라'라고. '못하겠다'라고 하자 구타세례를 퍼부음. 구타에서 못이겨 군화 밑 바닥을 혀로 핥았음.

10시30분 작업을 계속하고 몰려왔던 사람들은 감. '요령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라고 함.

11시30분 식사 집합하기 위해 모임. 또다시 15명 정도 몰려와서 끌고감. 쇠파이프에 붕대를 감고, 가죽장갑을 낀 10여명이 구타를 함.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잠시 혼절함.

12시 점심식사를 시작함. 식사 끝나지 무섭게 10여명이 또다시 끌고감. 무릎을 꿇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함. 그러나 주먹과 군화가 정신없이 날아 옴.

오후1시 역시 오후 일과가 시작됨. 역시 열외였음, 삼을 갖다 주면서 마저 하던일을 계속 하라고 함.

2시 10여명이 또다시 옴. 다시 구타를 시작함. 30분을 말 그대로 개패듯이 맞았음. 그중 한명이 '왜 때렸는줄 아느냐'고 함. '모르겠다'고 하자 '이유없이 때렸어. 새끼야'라고 함.

5시 일과를 끝마치고 오후 정돈과 청소를 실시함. 또다시 10명이 끌고 감. '너의 청소는 오늘 내 군화를 청소하는 것이다.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가 개밥그릇 핥듯이 헛바닥으로 핥아라'라고 했음. '너는 매일 청소 시간에는 군화를 핥아라'라고 함.

6시 저녁 식사를 시작함. 식사가 끝나지 무섭게 또 10명이 달려들어 가자고 함. 구타를 실시하고 웃는 모습으로 나감.

7시 내무반에서 앉아 있었음. 머리로 아프고 몸이 무거워 말을 듣지 않음. 그러자 10명이 번갈아 가며 쳐봄. 또다시 구타가 무서워 밖으로 나감.

8시 TV시청 시간임. 다른 중대원들은 대부분 내무반에서 앉아 TV를 시청함. 그러나 나는 내무반 입구에서 무릎 꿇고 앉아 TV소리만 들어야 했음.

9시 내무반 청소 시간임. 내무반 청소를 하는데 역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부당한 대접을 받음. 고참들의 손톱이나 발톱 깎은 것을 던져주며 먹으라 함. 시키는 대로 먹었음.

10시 다른 사람들 취침 시간인데 나만은 잠을 자지 말라고 함. 10분 후 책 한권을 갖고 옴. 독후감을 써서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함. 새벽4시까지 읽고나서 글을 쓰고났음.

3월 16일부터 하루 일정은 비슷했음.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라는 책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음. 수인번호 3179 "프로레타리아 독재론은 과연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 허와 실", "학생운동 전모", "어느 좌익 사상범의 고백"등 전부가 반공 서적들이었음.

3월25일 이날은 심한 구타에 일동 국군통합병원에 입실했다 그날 저녁에 퇴원하였음

3월29일 치아 한개가 부러짐

4월3일 이날 구타는 무척 심했음. 3번의 혼절이 있었고 다음날이 K-2영점사격이 있는 날이었음. 그래서 '너같은 빨갱이들은내일 사격을 하면사고 친다'며 구타가 무척 심했음. 이 도중에 '너 같은 빨갱이들만 보면 경멸하고 싶다'면서 군화로 얼굴을 걷어찼. 이빨 한개와 코뼈에 손상을 입음. 입원을 해서 다음날 오후 6시경 퇴원 함.

4월6일 4시경 디이상 구타를 못이겨 탈영을 계획함. 야전 상의를 울타리옆에 벗어두고 집합을 함. 야전상의 가지러 간다고 말하고 부대 울타리를 뛰어 넘음.

5시 이동 시내에서 붙잡힘. 부대로 끌려와 또다시 심한 구타를 당함.

4월7일 11시 누나 결혼식 때문에 휴가 갔다오라고 중대장이 휴가증을 끊어줌.

12시 부대를 빠져나옴.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로 부대 복귀를 결심함.

4월10일 밤8시 부대에 복귀함. 복귀하자 위병소에서 위병소 조장이 중대본부로 끌고 감. 끌고 가서 복귀 신고를 했음. 신고가 끝나자 수리 부속창고로 나를 데리고 감. 수리 부속 창고에 감금시킴.

4월11일 오전6시 7시 10명이 몰려와 구타를 자행함. '편히 쉬었다 왔으니 편했던 만큼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했음. 밥을 갖다 줌.

7시30분

8시30분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해냄. '때리는 것도 지치다'며 '좀 쉬었다 때리자'며 모두 나감.

11시경	다시 들어옴. 또다시 구타 당함. 이 도중에 혼절함.
12시경	밥을 갖다 줌. 내내 먹지 못하고 구토만 해 댐.
오후1시경	'너는 몇일 고생해야 한다'며 또 다시 구타함. 먹질 못하고 구타를 심하게 하니 까 구타의 강도가 줄어들 듯한 느낌이었음. 아니면 정신이 없어 구타정도를 못 느꼈는지도 모름.
2시	살아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음. 반드시 나가서 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신념밖에 없었음.
4시	다시 구타 시작. 다시 혼절 함. 전신에 힘이 쭉 빠져 늘어져 있었음. '너 같은 놈은 구타의 흔적도 없이 죽일 수 있다'며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에 봉대를 감은 것으로 구타를 함.
6시	식사를 가지고 왔으나 못 먹겠다고 하고 물을 갖다 달라고 함. 물을 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음. '탈영을 결심' 함. 몸이 너무 힘이 빠져 있었고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음. 아니 구타를 가하는 쪽이 오늘 무척이나 오래도록 구타를 하고 죽일 것 같은 표정들이었음.
7시	또다시 구타를 당함.
9시	구타로 혼절 함.
10시	구타로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음.(다소 힘들었지만 연극을 했음)
4월12일 새벽4시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탈영을 함. 중대 뒷산으로 들어감. 4월 12일은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뒷산에 숨어 있었음. 탈영을 하고 나서 1시간도 채 안되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들렸으며 꽤 당황하는 눈치들이었음.
오후7시30분	야산에서 내려와 이동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서울행 마지막 버스를 탑. 이동 시내를 벗어나 일동시내를 벗어날 때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긴 한숨이 나왔음. 이것은 살아 있다는 감사의 한숨이었음.
8시 25분	퇴계원에 도착하기 전 헌병대의 검문이 있었음. 마침 단기병들과 섞여 있었고 차가 막차라는 점에서 헌병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검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지나쳤음. 퇴계원에 도착했을때 또 한번 긴 한숨이 나왔음.
9시10분	서울 상봉 터미날에 도착. 택시를 잡아타고 미아 삼거리로 갔음. 누나 집을 갈까 망설이다가 헌병들이 지키고 있을 것 같아 포기하기로 했음.

10시경	서울역에서 집에 내려갈까 무척 망설였음. 그러나 문득 나 말고도 고생하고 있을 애국청년학도들의 고통에 찬 얼굴들이 운 앞에 떠올랐음. 그리하여 양심선언을하기로 결정했음.
------	--

나) 신상

소속 : 2군지사 5163부대 805독립중대(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군번 : 91-76002930
 성명 : 최 홍 기(군산대 제어 계측 공학과 88학번)
 생년월일 : 69. 2. 8
 주소 : 충남 보령군 남포면 봉덕리 419

다) 양심선언문

더이상 나같은 희생자는 없어야 하며 나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전국의 청년학도들이 하루빨리 구제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석양 이병의 결단력 있고 용기있었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가 남의 일인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민간사찰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녹화사업 속에서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분열하려는 책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기와 결단을 갖고 악랄한 저들의 녹화사업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닌 저 같은 입장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애국적 청년학도들이 걱정되기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양심선언을 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4천만 국민 여러분! 전국의 백만학도 청년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친구, 동생, 자식들이 한번쯤 고민하고, 또는 한번쯤 겪어야 될 시련입니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에도 저들은 겉으로 개선하겠다.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안사 민간사찰, 녹화사업들을 무척이나 조직적이고 무서우리만치 계획적 입니다. 저는 대학교 재학중에 올바른

권리를 찾고자 인간답게 살고자 무척이나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체제 전복세력이나, 문제학생이니 매도하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폭력으로 잡은 정권은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 급급합니다. 가장 첨예한 모순들이 존재하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학생으로 낙인 찍혀 합법을 빙자한 6공식 강제집을 통해 조기 입대했으며 신병훈련이 끝나면서 보안대로 이첩되어 2박3일간의 조사를 받았습니. 보안대에서 조사를 통해 배치받은 곳은 놀랍게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짜여진 녹화사업 부대, 독립중대였습니다. 독립중대라 함은 자유총연맹, 반공단체 가입자, 통일교신자들의 무리 속에 문제학생, 애국자들을 배치시켜 가혹한 구타와 반공교육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중대가 제가 속해있던 중대 근처에 6개가 존재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희생자들이 전국에 걸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대의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저하고 치밀한 녹화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화사업은 말그대로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어 산을 푸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을 개조시켜 철저한 정권의 충실한 충견으로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살당한 채, 오직 하라는데로 강요 당하며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둘째, 정권에 유리한 이념을 강압적으로 주입한다던 것입니다.

하루에 두시간 밖에 재우지 않고 반공서적들을 던져주며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강요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오전, 오후 내내(8시간) VTR시청을 통해 이념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오직 VTR에만 집중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권의 보복적 폭행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빨갱이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며 매일 7~8차례 이상이 자행되는 구타행위입니다. 또한 사회 있을 때 너같은 놈들 때문에 치를 떨었다’는 등의 말투를 통해 볼 때 단순구타도 아닌 분명 보복적 구타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차마 견디기 힘든점들의 군화 밑바닥을 혀로 할했습니다.

넷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8명이나 되는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신분에는 무척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분명 상관인 것 같은데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를 때, 6급 누구누구라(이름은 알 수 없지만) 식의 호칭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부분이 통일교 신자, 반공단체 가입자, 자유총연맹 소속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진행되는 종교행사는 다른 종교신자들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중대원 총원 60명중 23명이 통일교 집회를 갖는다는 점이며, 나에게 말하기를 사회에 있을 때 반공단체, 자유총연맹에서 활약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위치조차도 숨기고 있으며 규모가 작고 정예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로 되어 있는데 반해 위치는 포천군 이동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에서 중대인원은 적어도 120명정도 이어야 하는데 6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원을 통제하기 확실하며 운영하기 수월하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일곱째, 의문사도 조작해 낸다는 것입니다.

중대장이 면담 지시로 중대장실에 잠깐 들어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고 두렵게 하는 것은 실상과악 기록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좌익 사범들이라는 표에 37명의 명단이 있었으며, 그중 맨아래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옆에 전입일자 기록으로 보아서 선배였으며 모두다 사고자, 전투력 손실(정신분열증)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10일 부대 복귀를 했었는데도 탈영신고를 낸 것은 의문사의 초기조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상이 부대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진정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 군에서 많이 배우고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부푼꿈을 안고 군에 입대 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이런 모든 희망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군에 입대하게 될 전국의 애국 청년 여러분!

정녕 기만적 현정권의 합법을 빙자한 부당한 조기집집 속에서 철저하게 개입된 민간사찰의 녹화사업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권리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녹화

사업들은 현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전국의 국민에게 책임을 갖고 보안사는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사로 숨겨간 유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4천만 국민 여러분! 전국의 백만 청년 학도 여러분!

저들의 기만적인 녹화사업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며 제2의 군사 쿠데타를 꿈꾸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정권의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저들의 악랄한 탄압 수법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저와같은 녹화사업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기무사(보안사)의 해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 투쟁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현정권이 책임지고 기무사(보안사)를 해체해야 하며, 녹화

사업의 희생양이 되었던 전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가족까지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은 명백합니다. 기무사(보안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고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로 현 한국군을 돌려 세우기 위해 병역법등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소속 : 제2군수 지원사령부 5163부대 805독립중대

계급 : 이등병

이름 : 최 홍 기

통일진군 47년 4월 15일

9) 11월 5.18 광주민중항쟁을 맞이하는 애국군인의 이름으로...

이동익

가) 선언경위

저는 1969년 12월 24일 태생으로 서울 서라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8년 동국대 전산과 입학한 후 90년 9월 13일 입대하여 현재 50사단 해안 5대대 124 레이다 기지에서 근무하는 현역군인입니다. 선언을 하게된 경위는 11월 5.18 광주민중항쟁을 맞이하여 군대의 정치적 중립과 지금의 민주화운동이 매도당하는 현실에서 군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모습의 군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치적 편향, 시대착오적 이념학습, 일제의 폐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민주성, 인권유린의 실태,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군의 민주적 변화를 열망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애국군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군이 국가의 자주권 수호와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군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한 내부적 각성과 우리의 애국군인이 민주적 군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의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양심선언문

11월 5.18 광주민중항쟁을 맞이하는 애국군인의 이름으로...

5월, 눈이부시게 따갑던 그 햇살을 짙은 피빛 살육의 현장으로 짓이겨진지 어느덧 11월의 시간이 흘렀다.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5월의 빛고을.

바로 그날 M16 소총에 곤봉을 든 군인들의 피를 부르는 진압은 시작되었다.

외세로부터의 침략에 자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된 삶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군. 이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그들의 존재 기반으로 방패막이로 이용하며 우리의 형제, 가족, 친지들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도록 강요하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 적은 누구이고, 폭도들은 누구인가. 새삼 이런 질문을 아니 던질 수 없다. 강산도 변한다면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의 군은 오히려 더욱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현재의 군은 폐쇄성, 정권과의 밀착, 힘의 상징, 정치적 악행,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존속하는 실정이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폐쇄성, 이것은 민중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알권리마저도 박탈하고 굴종과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짙은 폐쇄성으로 지금의 민주화 운동을 폭도, 외부불순세력의 조종 따위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는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투쟁을 막아내기 위하여 합법의 탈을 가장하여 정치적 주체인 민중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꽃다운 나이로 국권의 자주적 수호와 민중의 생존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막중한 의무로 에온 우리의 아들, 친구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위한 전경, 백골단으로 차출하여 정권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자

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출된 전경, 백골단을 해체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되돌려야할 것이다.

그리고 시위진압훈련인 충정훈련! 한손에는 총을, 또 한손에는 곤봉으로 11년전 광주민중들의 꽃다운 넋을 짓이겨버린 그런 만행을 지금 그들은 우리들의 가족, 형제, 친구들에게 또 다시 가할 피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진정 그들이 민중의 수호자요 자주적 주권을 지키는 군이라할 수 있는가?

현 경찰의 민중통제감시기구인 안기부와 같은 군의 감시통제기구 기무사(옛 보안사)를 설치하여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언론인의 백주테러, 학원사찰, 프락치 강요, 시위전력자들의 녹화사업, 군내부의 감시통제, 군인들의 자주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폭력적 수단으로 억압하고 있다.

군내부의 사고, 의문사로 1년에 천여명의 젊은이가 군에서 이유없이 죽어가고 있다. 시위전력자들의 의문사 조작, 고문, 폭행등의 일들은 기무사에서 관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불법적인 인권유린의 온상인 기무사의 즉각적 해체는 한두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군은 식민지 일제의 유물인 구타, 기함, 가혹행위등의 잔재를 온존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군은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엄청난 사고사를 일으키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암적 존재이다. 고참들의 횡포, 신체적 고통,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 탈영등의 실상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먹칠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씻을 수 없

는 반군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전민중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겠다는 민주화 운동에 과거 광주와 같은 살육의 현장을 재현하기 위한 군의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 애국군인들은 과감히 민중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애국군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 형제, 친구들에게 겨누어져 있는 총부리를 되돌릴 때입니다. 민주적 군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애국군인들에게 민중의 생명과 자주권 수호를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 합니다. 또한 저는 선언합니다. 우리 애국군인들의 민주화운동 동참은 노태우를 끝장내는 투쟁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 민주화된 해방세상을 건설하는 마지막 투쟁이라는 것을.

*애국군인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 군의 민주화와 정치적 승리를 위해 과감히 싸워 나갑시다
- 시위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을 집단적으로 거부합시다
- 군내 의문사, 폭행사건들을 철저히 진상규명 합시다
- 대민사찰, 군인 통제기구 기무사를 해체합시다
- 자기 의사와는 무관한 전경, 백골단 차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합시다.
- 군내부의 비민주적인 인권유린 실태를 알려냅시다